

해외비교시찰 결과 보고서

2015. 4.



광진구의회
[해외비교시찰단]

차 례

I. 연수개요

1. 배경, 목적 등	1
2. 연수단 구성	2
3. 연수일정	3

II. 방문국 기본현황

1. 영 국(런던)	5
2. 프 랑 스(파리)	19
3. 이탈리아(로마)	27

III. 주요 방문지 연수내용

○ 테이트 모던	33
○ 베드제드	40
○ 파리시 17구 지역관리기업	46
○ 국립미테랑도서관	50
○ 올드 프피탈필즈 마켓	54
○ 코벤트 가든	60

IV. 기타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66

V. 기타 제안사항

79

VI. 맺 음 말

92

VII. 참고자료

94

I. 연 수 개 요

1. 연수배경

- 최근 문화재단 설립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깊은 역사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구의 문화재단 설립방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 우리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고 현재 광진구의 사회적기업은 1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외의 사회적 기업 지원시스템과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구의 실현가능한 지원체계마련 등을 모색
- 협오 내지 유희시설의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조사
- 우리구의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서유럽의 문화·유적 및 관광산업 수익창출 사례 조사

2. 연수목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의 현지를 답사하며 여행국의 우수 정책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

3. 연수기간 : 2015. 3. 27.(금) ~ 4. 5.(일) 8박 10일

4. 참가인원 : 9명(의원 6명, 수행 공무원 3명)

5. 연수지역 : 영국(런던), 이탈리아(로마), 프랑스(파리)

6. 연수단 구성

○ 단 장 : 기획행정위원장 전병주

연번	직 위(급)	소속위원회	성 명
1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전 병 주
2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3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석
4	의 원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관훈
5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옥
6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오현정
7	의 회 사 무 국 장		박상일
8	행 정 7 급		김창환
9	사 무 운 영 8 급		심중섭

※ 여행결과보고서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작성

7.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1일차 3/27(금)	인 천 런 던	OZ 521	14:30 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 •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11시간30분 소요)
2일차 3/28(토)	런 던	전용차량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 국회의사당, 웨스터 민스터 사원 등
3일차 3/29(일)	런 던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지역 소상공 및 경제 활성화 현황 시찰) - 버로우 마켓(재래시장) • 현장시찰#(도시 랜드마크와 문화예술지역 시찰) - 대영박물관, 버킹엄 궁전, 웨스트 앤드 • 현장시찰#(빈민가 재생 현장) - 이스트 엔드 (버려진 대형 양조장이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변신)
4일차 3/30(월)	런 던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화 사례) - 테이트 모던 ※ 방치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 • 공식방문#(친환경정책 및 친환경마을의 건축과 생활상 조사) - 베드제드
5일차 3/31(화)	런 던 로 마	항 공	10:0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 이탈리아 로마 도착(2시간 30분 소요) • 현장시찰#(협동조합 경제 및 일자리 창출 현장 시찰) - 레가코프 • 공식시찰#(공공미술작품 설치 우수 사례) - MACRO(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Rome)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6일차 4/1(수)	로 마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바티칸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교황이 통치하는 신원국가 • 현장시찰#(문화유산 보존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대전차경기장 등
7일차 4/2(목)	파 리	항공 전용차량	11:00 13:10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 출발 • 프랑스 파리 도착(2시간 10분 소요) • 공식방문#(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시설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미테랑 도서관 • 현장시찰#(문화관광서비스 및 운영 현황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샹제리제, 콩코르 광장 등
8일차 4/3(금)	파 리	전용차량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창출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지 17구 지역관리기업 • 현장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뜨 언덕, 성심성당, 테르트르 광장 등
9일차 4/4(토)	파 리	전용차량 OZ 502	전일 16:00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사유로 이동(약 40분 소요) • 현장방문# - 라데팡스 • 현장시찰#(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뤼소 정원(우범지대를 지역주민 공원으로 조성) • 파리공항으로 이동 • 파리 출발(2시간 30분 소요)
10일차 4/5(일)	인 천	전용차량	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약 10시간 5분 소요)

※ 상기 일정은 현지 및 기관의 사정 등으로 사전계획보다 일부 조정됨.

Ⅱ. 방문국 기본현황

1. 영국(United Kingdom)

가. 일반현황

- 국명 : 대영제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위치 : 유럽대륙 서쪽 북 끝에 위치
- 수도 : 런던(London, 800만명)
- 주요언어 : 영어
- 면적 : 243,610km²(한반도의 1.1배, 세계80위)
- 인구 : 약 6,374만명(2014. 7월, 세계22위)
- 기후 : 서안해양성기후
- 종교 : 성공회 50%, 로마카톨릭 11%, 개신교
- 종족 : 켈트족, 앵글로색슨족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원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로 정치적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음
- 통화 : 파운드(£)(GBP)
- 1인당 국민총생산 : 37,744\$(2014년)
- 시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으며, 썸머타임 실시중에는 8시간 늦음

나. 역 사

잉글랜드 왕국 및 스코틀랜드 왕국은 따로 나뉜 주권자와 독립한 나라로서 그들 자신의 군주와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며 9세기부터 존재해 왔다. 일단 웨일스 공국이 1284년에 러들랜 법(Statute of Rhuddlan)에 따라 잉글랜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603년부터 왕국연합(Union of the Crowns)이라는 동군연합 상태였던 잉글랜드(웨일스를 포함한)는 1707년 연합법

(Acts of Union 1707)에서 스코틀랜드와 합병하였다. 이로써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형태로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졌다.

1800년 연합법(Act of Union 1800)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에 아일랜드 왕국을 병합시켰다. 당시 아일랜드는 리머릭 조약(Treaty of Limerick)에 따라 1541년부터 1691년까지 점차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아 가던 상태였다. 그에 따라 1801년에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성립하였다.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은 2년 전에 아일랜드 섬의 분할에 따른 결과이며, 얼스터 지방(province)의 9개 주(county) 가운데 6개 주가, 1927년에 현재 이름으로 바뀐 영국령으로 남겨졌다.

영국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및 유력한 문학과 연극의 전통을 가진 계몽시대의 중요한 국가였다. 그 다음 세기 내내 영국은 문학, 예술 및 과학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의회 민주주의와 같은 서양 사상의 발전에서 주역이 되었다. 초기 대영 제국의 부는 다른 강국처럼 역시 1750년 이후에 있었던 노예무역의 산업화를 포함한 식민 착취에 의해 그 일부는 생성되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 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영국 함대가 아프리카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악명 높은 삼각무역의 일부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영국은 노예무역법을 만들어, 영원히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영국은 미국의 시카고,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뉴욕, 볼티모어, 보스턴,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을 차지했다가 18세기 말에 독립시켰다.

산업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 뒤에, 19세기 영국은 세계의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대영 제국이 전성기일 때 영국의 영토는 지구의 약 4분의 1(1/4)까지 커졌었고, 인구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이었다. 이는 역사에서 가장 큰 인구와 영토였다. 당시 대영 제국은 그 영토가 지구 널리 퍼져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다. 1910년대 후반에는 이라크까지 점령하였다.

19세기 내내 영국은 다당제의 출현과 투표권의 확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학과 예술의 발달은 18세기에 이루어진 아이작 뉴턴 등의 업적을 계승하거나 부분적으로 더 오래된 문학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영국은 탁월한 강대국으로 남았고, 1921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 뒤에 국제 연맹 위임 통치령이 되었던 독일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획득하여 최대로 넓어졌다. 전쟁에서 벗어난 뒤에 세계 최초로 거대한 국제 방송망인 BBC가 생겨났다. 영국의 노동 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확장해 왔고, 1924년에 제1차 노동당 내각이 집권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를 포함한 영국 연방과 연합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연합국과 연합하여 나치 독일과 싸웠다. 전시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그의 후임 클레먼트 애틀리(Clement Attlee)는 3대 강국의 한 축으로 전후 세계를 계획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에 재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비싼 전시 대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1945년에 빌려준 대부금이 전후에 미국의 마셜 플랜 원조와 합쳐져서 영국은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에 영국은 세계 최초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의료 제도를 포함한 복지 국가의 출현을 알렸고, 정부 정책의 변화는 영국 연방 도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민족 국가로서의 영국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전후 영국의 정치적 역할의 한계가 1956년 수에즈 사태에서 보여졌지만, 영어의 국제적 통용과 1960년대 영국 대중 문화의 해외 전파는 영문학이나 영국

문화가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했다. 1970년대의 국제 경제의 하향세와 산업 쟁의의 시대에 뒤이어 1980년대는 북해 유전의 수익과 경제 발전이 있었다. 마거릿 대처 수상의 지도력은 전후 정치적, 경제적 합의의 전환을 이끌었다. 이러한 경향이 1990년대 중반부터 토니 블레어의 지도 아래 계속되었다.

영국은 1973년 이후로 유럽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고, 1992년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서명하여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 연합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오늘날 노동당 내각의 태도는 EU와의 통합으로, 보수당은 몇몇 권리와 자격의 반환으로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현재 정책의 지지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지 리

브리튼 제도와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에 자리잡은 북아일랜드로 이뤄진 섬나라이다. 서쪽으로 대서양이, 동쪽으로는 북해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의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인접해 있다. 남북으로는 북위 49도에서 52도(세틀랜드 섬은 62도)에 이르며 동서로는 동경 2도에서 서경 8도사이에 놓여 있다.

잉글랜드는 브리튼 섬의 남부 저지대로 면적은 섬 전체의 약 56.7%인 130,410km²이다. 스코틀랜드는 북부 고지대로 78,789km²이며, 서부 고지대인 웨일스는 20,758km², 북아일랜드는 14,160km²이다.

라. 기 후

중위도 대륙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로서 멕시코 만류(灣流)와 편서풍 때문에 위도에 비해서는 따뜻하다(1월의 기온 6~3 °C). 그러나 겨울에는 간혹 섭씨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며 여름에는 섭씨 35도까지 오르기도 한다. 비는 서해안에는 많으나 동해안에는 적다.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안개가 많으며 런던에서는 스모그가 1년에 90일간 생겨서 '안개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연평균 강수량은 서부와

북부의 산간 지방에서는 1600mm 이상이지만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800mm 미만이다. 비는 연중 고루 내리는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가 비가 가장 적고 9월부터 1월까지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마. 행정구역

영국의 행정 구역은 꽤 복잡하다. 우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성 국가들로 나뉜다. 각 구성 국가마다 자체적인 행정 구역 체제가 나뉜다.

- 잉글랜드의 행정 구역 :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나뉘어 있다. 각 지역은 다시 48개의 주(county)로 나뉜다.
- 스코틀랜드의 행정 구역 : 스코틀랜드는 32개 주(council area)로 나뉜다.
- 웨일스의 행정 구역 : 웨일스는 22개 주(unitary authority)로 나뉜다.
- 북아일랜드의 행정 구역 : 북아일랜드는 26개 구(district)로 나뉜다.

그 밖에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들과 왕실령(crown dependency)들이 존재하나, 이 지역들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 정 치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래간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로, '군주는 군림하여도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군주의 권한 행사는 내각의 조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성문(成文)화된 헌법은 없으며, 정치의 기본은 전통·관례·약간의 기본법(대헌장, 인권선언, 의회법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세기 후반에 확립되었으나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성(省)의 관할 밑에 놓여 있다. 의회는 상원(The House of Lords)과 하원(The House of Commons)의 양원제로 되어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상원은 약 1,190명의 의원으로, 하원은 651명의 의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최근까지 '귀족들을 위한

의회'였으나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이후 이탈리아와 같이 직능 대표 단체로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특징으로선 3대 정당제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를 이루었으나, 1900년에 노동당이 등장하였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당의 세력이 줄어들면서 대신 노동당이 크게 성장하여 3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현대에는 극우 정당인 영국 국민당, 우익정당인 영국독립당 등이 등장했으나 기본적인 3당체제의 틀은 아직 유지 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가원수는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고, 총리는 데이비드 캐머런이다. 영국은 군주제와 민주주의가 한번에 같이 존재한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 즉 의회가 곧 내각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만 채택하여 각 선거구마다 1명만을 뽑는 'First-past-the-post'방식으로 모든 의원을 선출한다. 법상 최장 5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집권당이 되며, 이들이 내각(Cabinet)을 구성한다. 야당은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집권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총선 이후 총리로 임명되었다.

〈군주제〉

군주제의 시작

영국의 군주제(君主制)는 적어도 1,100년 전에 시작되었다. 현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829년 잉글랜드를 통일한 에그버트 왕의 직계 후손이다. 군주제의 역할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변화되었다. 초기 군주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이는 의회와 사법부의 발달로 축소되었다. 왕과 의회의 권력 투쟁으로 1689년 제한된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확립과 함께 19세기 말에는 정치면에서 군주의 능동적 역할이 최소화되었다. 오늘날의 군주로서 현재 왕은 국가의 중립적 원수의 역할을 한다.

법적 위치

법적으로 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반, 전군 최고 사령관, 영국 성공회 (말 그대로 Church of England 곧 영국 성공회임. 그 외 지역 성공회 교회들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교회임)의 수장(명예상의 수장으로 의회에서 제출한 성직자 후보명단에 근거하여 성직자 임명권한이 있음.)이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각료들이 내린다. 영국은 왕의 이름하에 왕국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왕은 상징적 중요성을 지닌 정부의 몇가지 역할을 아직 수행하고 있다. 왕은 의회를 소집, 해산하며 법안을 재가한다. 또 총리와 각료들을 포함한 주요 관리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섭정규정

왕의 임무 수행 불가능시를 대비하여 섭정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섭정은 왕의 영국의 왕세자 격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prince of wales)가 되며 그 다음 순위는 왕위 계승 서열에 따르지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왕이 부분적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해외 여행으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왕의 어떤 임무를 임시 섭정들(국왕의 배우자-현재는 여왕의 남편인 에딘버러 공-,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이 되는 4명의 성인(成人)들, 국왕의 모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섭정들은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작위를 수여할 수 없다.

공식과 비공식의 결합

군주제의 한가지 특징은 공식적인 면과 비공식적인 면이 결합된다는 점이다. 전통적 의식은 아직도 중요한 일부이다. 왕실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가 행사이다. 6월에 공식적으로 열리는 여왕 탄신 기념식 때 여왕 근위병의 열병식인 군기 분열식이 행해진다. 외국의 국왕이나 국가 원수가 영국을 방문하면 공식 연회가 베풀어지며 작위나 훈장 수여식은 버킹엄 궁전과 스코틀랜드 홀리루드 궁전에서 열린다. 군주제는 TV를 통해 또는 국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더 친근해졌으며 왕족들이 일반인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걷는 것도 왕실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 문 화

영국의 문화는 영국과 영국인과 관련된 인간 활동과 상징의 패턴이다. 선진화된 섬나라, 자유민주주의, 강대국, 기독교적 종교 생활, 4개의 컨트리(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또 그곳의 구별되는 의상, 문화, 상징이라는 영국사로 설명된다.

영국 문학, 음악, 영화, 미술, 연극, 매체, 텔레비전, 철학, 건축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다. 또, 영국은 과학기술에도 두드러진다. 스포츠는 영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되어 있는데, 특히 축구와 같은 수많은 스포츠가 이 나라에서 기원하였다. 영국은 문화 초강대국(cultural superpower)으로 기술되며 런던은 로마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적 수도로 기술된다.

영국의 기원과 더불어 산업 혁명은 사회경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대영 제국의 결과로 영국의 상당한 영향력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공화국,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의 언어, 문화, 법률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나라들은 통틀어 영어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속한다.[7][8] 영국 제국은 영국 문화, 특히 영국 요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 예 술

영국인의 경험주의적·현실주의적 성격은 예술에도 반영되었다. 예술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음악 분야에 거장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국민성 때문인 것 같으며, 웨스트민스터대성당에서 기리고 있는 헨델도 본래는 독일인이었다. 마찬가지로 음악과 관계가 깊은 오페라나 발레도 외국에서 수입되어 나중에 발전하였으며 역사는 길지 않다. 음악과 달리 문학과 연극이 불멸의 전통을 지닌 것은 현실적인 인간세계를 그리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관념이나 추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은 어느 예술분야에서나 그 역사가 짧다.

희곡의 W.셰익스피어, 소설의 G.초서 모두 그 주제는 인간이 엮어내는 세계를 다룬 것이다. 공상문학의 전통도 있으나 가령 모어의 《유토피아》는 신랄한 현실 비판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D.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공상적 환경 속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생활 태도가 주제로 되어 있다. 전기문학에서 걸작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영국민의 속물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문예비평가 M.아놀드는 “시에서는야말로 영국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프랑스 비평가 텐은 “영국시보다 나은 시는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도 그 주제는 인간 아니면 자연 세계에 있다.

미술 부문도 유화이건, 영국에서 특히 발전한 수채화이건 초상화나 풍경화 분야에서 걸작이 많다. 영화에서는 히치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현재 1,800여 개의 극장에서 매주 약 190만 명이 영화를 관람한다.

현대 영국의 특징의 하나는 적극적인 예술진흥정책에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인 영국인은 예술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두려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대와 시민에게 문화적 위안을 제공할 필요성에서 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음악·예술협의회가 도시는 물론 어린이와 노인의 소재지에 찾아가 음악·연극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예술협의회(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AC)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뒤이어 정부의 원조 정책에 힘입어 로열오페라하우스, 새들러스웰스(Sadler's Wells) 오페라발레단, 국립극장, 로열셰익스피어극단(Royal Shakespeare) 등 각종 교향악단과 지방의 레퍼토리 극장이 미술전시회와 함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월슨 노동당 정부는 영국사상 최초로 예술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예술진흥정책의 확충을 꾀하도록 하였다.

한편, 1948년의 지방자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의 2.4%를 예술진흥비에 총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버밍엄시는 지방 도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미술관을 유지하고 일류 악단인 버밍엄시티 오케스트라에 재정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로 맨체스터시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우수한 시민극장을 가지고 일류 헬리오케스트라를 원조하고 있다. 청소년 예술활동도 중시되어 국립청년극장과 국립청년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각종 교육기관의 교내 연극 등 기타의 예술활동이 중앙과 지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자. 영국 정부 문화예술정책 동향

□ 英 정부 문화예술정책 기본방향

-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의 자생력 확보에 초점
- 국고 지원 감축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 재정조달 방식 (mixed funding) 활성화에 중점
 - 국고·기금 등 공공재원 외에도 기부 등 민간지원 및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기관·단체의 재정 조달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
- 문화예술 지원 기본 원칙은 지속 준수·강조
 - Arm's Length: 문화예술 지원 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정부 간섭 배제
 - Great Arts for everyone: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예술 활성화

□ 주요 정책

1)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공공재원 확충

-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문화예술 국고 지원을 복권기금 확충을 통해 보전
 - '12. 4월부터 복권기금 문화예술 지원 비율을 16.67%→20%로 확대
 - ※ 영국 복권기금(Lottery Fund): 1995년부터 기금의 일정비율을 문화 예술 분야에 지원해 왔으며 지원 예산은 예술위원회를 통해 집행
 - 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이 '10-'15년 5년간 약 23%, 1억 파운드(약2,000억원) 이상 삭감되었으나 복권기금 확충으로 전체 지원예산은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

※ 2010-2015 예술위원회 지원 예산 (단위: 백만 파운드)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국고 (Grant-in-aid)	450	388	359	348	343
복권기금	151	182	243	260	262
총계	601	569	602	608	605

2)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간 기부, 펀드레이징 활성화

○ 민간 기부 촉진 기금(Catalyst fund) 제도 실행

- 국고 및 복권기금 총 1억 파운드를 민간기부를 유치한 문화예술단체에 1:1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Catalyst fund 정책 실행
- 단순 기금 지원 외에 기관 및 단체들의 효과적 펀드레이징 역량 개발 지원

○ 세금 우대 조치

- 문화예술품 및 문화재 기부시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Cultural Gifts Scheme 지속 실시
- ※ 그러나 동 제도는 현 정부가 고액 기부예 대한 면세범위를 제한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들로부터 크게 비판받기도 함
- 2011년부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유산 기부(legacy giving)에 대한 감세정책 실행 (유산의 10% 기부시 증여세 10% 감면)

○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조달 역량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

- ▶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
-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조달 역량 강화방안
- ▶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3) 청소년 및 젊은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조

- 국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중장기 정책으로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조
 - 여건 및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창의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목표
- 2013. 7월에 문화부·교육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종합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3년간 292백만 파운드(약 5천3백억원) 예산 지원 결정
 - 6개 핵심 정책목표 수립
 - ▶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기회 제공
 - ▶ 재능 육성 및 불평등 해소
 - ▶ 양질의 문화예술 교과과정 및 평가제도 수립
 - ▶ 양질의 수업 실시
 - ▶ 국가적 문화·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 음악, 무용, 미술 및 디자인, 연극, 영화, 문화유산 분야에 걸쳐 총 13개의 핵심 사업 추진

4)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극대화

- EU의 유럽 문화수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사업에 영감을 얻어 ‘영국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 사업 기획
 -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하여 도시 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4년에 한번씩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도시 선정
 - 선정된 도시에 민간기금 포함 15백만 파운드(약 3백억원) 지원하여 약 3년간 사업 추진하고 해당 년도에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개최

-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송매체 노출 확대를 통해 장기적 관광 활성화, 지역 주민간 유대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간 협업 및 연계 강화 도모

□ 정책효과 검토 및 결론

- 현 영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과제 속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이전 정부와 같은 뚜렷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이전 정부들의 경우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등 강력한 문화정책 수립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속된 지원예산 감축으로 문화예술기관·단체들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나 늘어남에 따라 민간기부 활성화 및 재원 다각화를 통한 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도시재생 등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에 주력
 - 공공지원 감축에 대응한 문화예술기관·단체들의 재원 확충 노력으로 민간기부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상당 폭 확대
 - 잉글랜드 기준 문화예술분야 민간 기부 및 기업 후원은 2012년에 전년대비 7.6% 증가해 660백만 파운드 (약 1조 2천억)에 이룸
 -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은 모두 상당 규모의 독립된 펀드레이징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드레이징이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잡음

2. 프랑스

가. 일반현황

- 국 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프랑스어), The French Republic(영어))
- 국 기 : 삼색기(Le drapeau tricolore)로 불리며, 자유·평등·박애를 상징
- 위 치 : 위치 유럽 대륙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
- 면 적 : 643,427㎢(한반도의 2.5배, 세계 43위)
- 인 구 : 약 6,595만명(2013. 세계 21위)
- 기 후 : 대륙성기후, 지중해성기후, 해양성기후
- 종 교 : 로마카톨릭 83%, 개신교 2%, 이슬람교
- 종 족 : 골족
- 수 도 : 파리(인구 약 220만명)
- 정부형태 : 대통령제, 의회는 양원제
- 공 용 어 : 프랑스어
- 통 화 : 유로화(Euro)
- 1인당 국민총생산 : 45,383\$(2014. 세계20위)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나. 역 사

로마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근대 프랑스의 경계는 대략 고대 골족의 영역과 같다. 기원전 10세기 이래 켈트인이 거주한 서구지역을 로마인들이 갈리아라 불렀다. 기원전 7세기

경까지는 도나우 지방에서 이동해 온 켈트족이 갈리아 지방에 씨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갈리아는 인적 결합체로서의 전사단인 몇 십 개의 키비타스(civitas)라고 하는 정치상의 단위로 나뉘어 있었다. 부족 내부에는 기사 및 성직자 등의 지배층과 무장능력을 지닌 일반 자유민 외에 노예가 있었으며, 목축과 원시적인 쟁기를 사용하는 농경이 이루어졌다.

고대 로마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끈 군대가 기원전 1세기 경에 골족을 정복하였다. 폼페이우스 장군, 대부호 크라수스와 야심 많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제1차 삼두 정치 시대가 열린 로마는 그 정복의 칼끝을 유럽의 평원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카이사르는 알프스 산맥 너머에 있는 골 지역을 "로마화"하려고 하였다. 기원전 52년 켈트 족 연합군의 최고지휘자 웨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의 발 밑에 그만 무릎을 꿇게 되었다. 기원전 51년에 카이사르는 전(全)갈리아를 평정하고 로마의 속주(屬州)로 삼았다. 이로써 번영 일로의 "팍스 로마나" 시대의 영역은 라인 강 지역까지 미치게 되었다. 웨르킨게토릭스가 카이사르에게 참패한 후, 라틴어가 켈트 족의 언어를 대체하였고, 골인은 선진 로마의 풍습을 모방하였다. 소위 "문명인"과 "야만인"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지닌 거만한 정복자들에게 골족은 영락 없는 "야만인"이었다. 골인들은 독특하고 공통된 문화 자산을 소지하였으나, 부족들은 경쟁과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

기독교(로마 가톨릭)는 기원후 2-3세기 무렵에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4-5세기 무렵에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라틴계 교부인 성 제롬은 골 지역이 유일하게 "이교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고 기록했다.

기원후 4세기에 이르면 골족 영역의 동쪽 경계인 라인강 너머에서 게르만 부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라인강을 따라 남하하였고, 주로 프랑크 족이었던 그들은 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골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때 갈로로마 문화가 무너지고 암흑기에 접어든 것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톨릭"의 영향으로 문화의 연속성은 유지되었다.

프랑크족은 로마제국이 무너진 이후 유럽 곳곳으로 밀려든 게르만 정복자 중에서 처음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론(기독론)에 대한 교의차이로 이단으로 단죄된 아리우스주의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개종한 첫 번째 부족이었다.(그들의 왕인 클로비스 1세가 498년에 개종하였다. 그 덕분에 프랑스는 "교회의 장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La fille ainée de l'Église). 클로비스 1세는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메로빙거 왕조를 수립했다.

카롤링거 제국은 샤를마뉴 대제 시대에 들어가 크게 번영했다. 하지만 베르딩 조약(843년)을 시작으로 동 프랑크(독일), 중 프랑크(이탈리아), 서 프랑크(프랑스)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서 프랑크의 영역은 대략 현대 프랑스의 것과 비슷하며 현대 프랑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다. 카롤링거 왕조는 파리의 백작이자 프랑스의 공작인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987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했다. 그의 후손인 카페 왕조, 발루아 왕조, 부르봉 왕조는 계속되는 전쟁과 왕조의 유산을 통해서 꾸준하게 나라를 통합하였다.

그 후, 노르만의 침입, 이슬람의 침입을 겪는 동안 십자군이나 고딕 건축으로 대표되는 중세 봉건사회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프랑스 남부에 해당하는

옥시타니아 지방의 이단 종파인 카타리파를 제거하기 위한 알비 십자군은, 1209년에 시작되었다. 십자군 원정의 결과로 카타리파가 제거되고 남부 프랑스의 독립이 좌절되었다.[8] 1337년에는 흑사병이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 돌입하였다.

프랑스의 종교 전쟁 (1562-98) 중에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1572년 수 천명의 위그노들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에 휘말려 살해되었다. 잔다르크가 등장한 백년전쟁,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과 그에 따르는 분쟁을 거쳐 중앙집권이 거의 확립되었고, 절대 왕정은 17세기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에 그 정점에 달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보유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있어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부터 프랑스어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용어가 되었다. 계몽주의 사상의 대부분은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며, 18세기의 주요한 과학적 발전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성취한 것이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시리아, 레바논 등 식민지를 얻게 되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년 7월 14일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왕정체제이었다. 왕정은 1789년 7월 14일 화요일에 성직자와 귀족 계급을 무너뜨리려는 목적하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기간 중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즉시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1792년 9월 제 1 공화정이 들어설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동안 중에서 나폴레옹이 등장, 국민의식과 인권사상을 각국에 보급했다. 그의 실각 후, 왕정복고와 혁명이 되풀이되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 파리 코뮌의 뒤를 이어 제3공화제가 성립되었는데 이 체제 밑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치스 점령 하의 대독 레지스탕스 등 어두운 시대를 거쳐 전후 제4공화제의 성립을 보았다. 그러나 식민정책의 실패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해져, 1958년 드골이 지도하는 제5공화제의 시대로 들어갔다

다. 자연환경

위 치

프랑스의 국토는 북위 46도 ~ 북위 58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 서단의 지협부를 차지하고 전체 면적은 55만 1,695km²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전체적으로는 대각선이 1,000km인 6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갖추고 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남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북해와 접해 있다.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는 동쪽은 이탈리아와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남쪽은 스페인, 남서쪽으로는 안도라, 남동쪽으로는 모나코가 있다. 또한 대륙을 벗어나 북서쪽으로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하고 있다. 이 뛰어난 교통상의 위치로 해서 유럽 문명의 십자로라는 말을 들어 왔고 항상 그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해외 영토는 브라질과 수리남, 네덜란드의 해외 영토인 신트마르틴 섬과 국경을 접한다.

지 형

국토의 평균 고도는 342m이다. 500m 이상의 고지대는 국토의 17.8%에 불과하고 250m 이하의 저지대는 61.8%에 달할 정도로 광대하다.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높고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대서양으로 지형이 열려있다. 한편 남동부 지역에는 고도가 높고 기복이 큰 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3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의 지형은 알프스 조산운동과 헬시니아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전자는 알프스·피레네·쥐라 등의 험준한 습곡산지를 이루고, 후자는 중앙산지와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뻗는 아르모리칸 산지 및 북동쪽으로 뻗는 보즈·아르덴느 산지를 형성했다. 이들 산지는 침식이 진행된 노년기의 지형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완만하다. 중앙산지의 북쪽에는 파리 분지, 남서쪽에는 아키텐 분지가 펼쳐지고 남동쪽은 알프스와의 사이에 손강, 로온강의 좁은 계곡이 뻗친다. 아르모리칸 산지는 노르망디 반도와 브레타뉴 반도에 걸쳐 2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산지의 사이를 르와르강·센강·가론강 등이 흐르고 있다.

기 후

지중해의 영향을 받으나 고위도이기때문에 춥고 서늘하다.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해발고도, 국지적 풍향에 따라 변화무쌍한 기후가 된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양한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부는 영국만큼이나 비가 자주 오나 남부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 1000m 이상의 산이 국토 면적의 40%를 점하는 유럽 제 2의 삼림국가

이자, 유럽 제 1의 낙농국가이다. 피레네산맥일대와 알프스산맥일대는 겨울엔 매우 춥고 눈이 매우 자주 오며, 여름엔 건조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 연평균 기온은 지중해안의 마르세이유에서 15℃, 파리에서는 5℃ 전후이다. 기후의 연교차는 크지 않고, 서남부의 피레네산간지방과 동남부의 알프스산간지방의 일교차는 20℃ 정도가 된다. 강수량은 산악 부에서는 1600mm 전후이고, 내륙에서는 1200mm 전후이다.

정 치

알제리 문제 등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드골 장군은 1958년 10월 8일에, 준대통령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는 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에 바탕을 둔 제5공화국의 특색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에 있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서 구성된다. 초기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2회 투표, 소선거구제의 직접 ·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577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국민의회 및 지방의회 대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구성된다(정수 319명, 임기 9년, 3년마다 1/3개선). 정당은 중도파의 신(新)공화국 연합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작은 당의 분립인데, 소선거구제로 인해 정국은 일단 안정을 보이고 있다. 드골 대통령의 EC를 기초로 하는 유럽의 단결을 꾀함과 동시에 타국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위대한 프랑스’의 실현을 지향했다. 자유 진영에서는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사관을 개설했고, NATO의 군사기구 탈퇴, 독자적인 핵전력의 개발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드골의 퇴진 후 1969년 9월 조르주 폼피두 총리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74년 급서했으며, 1974년에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제3대 대통령에, 1981년 5월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제21대 대통령에, 1995년에는 신 드골주의자 자크 시라크가 제22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2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2012년 5월 6일 재선에서 패했고, 현재는 사회당 출신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 자리를 맡고 있다.

정치 변동

- 절대 왕정: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 제정 : 1804년부터 1815년까지, 1852년부터 1870년까지
- 입헌 군주제: 1815년부터 1848년까지
- 공화정: 1792년부터 1795년까지, 1848년에서 1852년까지, 1871년부터 현재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행정구역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프랑스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는 코뮌이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도시도 하나의 코뮌을 이루고 있다. 여러 코뮌들을 묶어 칸톤을 이루며, 여러 칸톤이 모여 아롱디스망이 되고, 아롱디스망이 모인 것은 데파르트망이라 한다. 몇 개의 데파르트망이 모여 레지옹을 이룬다. 2005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22개의 레지옹, 96개의 데파르트망, 329개 아롱디스망, 3,879개의 칸톤, 36,568개의 코뮌이 있다.

3. 이탈리아

가. 일반현황

- 국 명 : 이탈리아 공화국(Italian Republic)
- 국 기 : 자유, 평등, 박애 상징
- 위 치 : 유럽 중남부
- 면 적 : 30만 1277km²(한반도의 1.5배)
- 인 구 : 6,148만명(2013)
- 수 도 : 로마(약 280만명)
- 정치체제 : 민주 공화제(내각책임제)
- 종 교 : 로마카톨릭 90%
- 공용어 : 이탈리아어
- 통 화 : 유로화(Euro)
- 1인당 국민총생산 : 35,511\$(2014, 세계30위)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나. 역 사

이탈리아의 역사는 지중해 지역 전체의 문화·사회 발달에 끼친 영향을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선사 시대에도 중요한 인간 활동의 무대여서 라치오 주, 토스카나, 움브리아, 바실리카타 지역 등 곳곳에서 그 유적이 발견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와 에트루리아 시대, 특히 여러 세기에 걸쳐 지중해 지역을 지배한 로마 제국은 세계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 제국 후에는 중세의 인본주의와 르네상스가 유럽의 철학과 예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탈리아는 민족국가로의 발전이 늦어졌는데, 1861년 3월 17일에야 반도 본토의 나라들과 양(兩) 시칠리아가 당시 피에몬테와 사르데냐 왕이던 사보이 왕가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지배 아래 통일되었다(이탈리아 왕국).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은 총리였던 카보우르였다.

로마는 그 후에도 교황령에 계속 남아 있다가 1870년 9월 20일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현재 바티칸 시국은 산마리노와 함께 이탈리아에 완전히 둘러싸인 독립 국가이다. 1883년에 아프리카에 진출, 에리트레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1896년에는 에티오피아와 교전하였으나 실패,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인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중립을 선포했으나, 1915년에 연합국에 가담했다.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티롤지방을 비롯한 아주 일부지역만 얻었을뿐 큰 소득은 얻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싸움이 빈번하였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계급투쟁을 벌였다.

실례로 1919년 3월에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에서 노동자의 공장 운영, 거리 투쟁, 생산 관리 등의 강력한 행동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남부 농업지역에도 파급되어 노동자층의 계급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단결을 두려워한 지주, 군벌 등은 로마제국의 영광을 되찾자고 주장하며

국가주의를 내세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을 지지하였다. 1922년 집권한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쇼 독재정부는 1936년, 에티오피아와 교전하여 승리, 5년동안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했다. 나중에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독일과 일본과 동맹을 맺었으나 이 결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했다.

1946년 6월 2일 국민 투표를 통해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되었으며, 1948년 1월 1일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엔리코 데 니콜라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해 첫 선거에서 루이지 에이나우디가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전쟁시 대한민국에 의료인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55년 조바니 그론키가 후임으로 선출되었고, 1962년 안토니오 세니가 후임이 되었다. 그러나 세니는 병으로 인해 2년만에 사임,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그 해에 주세페 사라가트가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1971년 조바니 레오네가 후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록히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레오네는 퇴임을 얼마 앞두고 조기 사임하였다.

1978년 산드로 페르티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첫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하였고 7년 뒤 프란체스코 코시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페르티니 정권 시절 알도 모로 총리가 살해되고 바티칸 시국의 교황이 급서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났고, 코시가 정권 역시 공산당이 비난을 받는 등 혼란에 시달렸다. 그런가 하면 1992년 출범한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 정권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주로 힘썼다.

이탈리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유럽 연합의 원년 회원으로 서유럽의 정치·경제적 통일에 동참하였으며 1999년에는 유로를 통화로 도입하였다. 그 해에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06년 조르조 나폴리타노가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이탈리아 헌법 상 재임은 금지되어 있으나, 2013년 대선에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나폴리타노가 자동으로 2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이탈리아의 최장기 집권 대통령 및 유일하게 재선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14일 사임하였고, 후에 대선에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세르지오 마타렐라가 당선되었다

다. 지 리

이탈리아 영토의 대부분은 지중해에 뻗은 커다란 반도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이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주변 바다를 몇 구역으로 나눈다. 북동 쪽으로는 아드리아 해, 남동쪽으로는 이오니아 해, 남서쪽으로는 티레니아 해, 북서쪽으로는 리구리아 해를 형성한다.

이탈리아 반도의 등뼈에 해당하는 아펜니노 산맥은 북서쪽에서 알프스 산맥과 맞닿는다. 알프스 산맥은 곡선을 그리며 이탈리아의 북쪽 경계를 형성한다. 이 지역에는 총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포-베네치아 평원이 있어 물은 포 강과 알프스, 아펜니노, 돌로미티 산맥 등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지류로 흘러든다. 포 강 외에 잘 알려진 강에는 테베레 강, 아디제 강, 아르노 강 등이 있다.

몽블랑 산해발 4,810m의 몽블랑 산(이탈리아어로 몬테 비앙코)이 가장 높은 지점이지만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산은 나폴리 근처의 휴화산 베수비오 산 과 시칠리아의 활화산 에트나 산 이 두 화산이다.

라. 경 제

이탈리아의 경제는 다양화된 산업 경제로 프랑스, 영국과 총생산과 1인당 생산이 비슷하다.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아직까지 산업화되고 사유 기업 중심인 북부와 농업 중심으로 발전이 덜 되고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남부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의 인근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소 기업의 수가 많다.

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와 에너지 필요량의 75%는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 10년간 이탈리아는 유럽경제통화연맹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긴축된 재정 정책을 편 결과 낮은 이율과 물가 상승률에 힘입어 1999년 유로화의 첫 도입 당시부터 이탈리아 역시 유로를 도입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경제 실적은 다른 EU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진다. 현 정부는 다수의 단기 개혁을 시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 성장을 도모하려 하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는 구조적 개혁, 즉 높은 세율을 낮추는 것,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비용이 드는 연금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불경기와 노동 조합들의 반대 때문이다.

농업은 올리브, 포도, 토마토, 밀, 쌀 등의 생산으로 발달하였으며, 포도주의 생산은 프랑스와 맞붙는 편이다. 공업은 북부의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등지를 중심으로 기계, 자동차, 섬유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가난하던 남부에서도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포 강 유역에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이다.

마. 문 화

이탈리아는 문화 예술과 수많은 기념물들로 잘 알려져 있다. 피사의 사탑과 로마의 콜로세움 등의 역사적 건축물과 이탈리아 음식(피자, 파스타 등), 포도주, 생활 양식, 우아함, 디자인, 영화, 연극, 문학, 시, 미술, 음악 (특히 오페라), 관광 등은 이탈리아를 세계적 문화국가로 만들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들이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와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페트라르카, 토르콰토 타소,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시와 조반니 보카치오, 니콜로 마키아벨리,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의 산문은 서양 문화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라파엘로 산티, 산드로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미켈란젤로 등의 거장들을 배출한 회화와 조각, 건축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미술가로는 조각가 톰마소 제라치가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몬테베르디, 팔레스트리나 , 비발디 등은 한 시대를 풍미했고 19세기에는 조아키노 로시니, 주세페 베르디, 자코모 푸치니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오페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현대의 이탈리아 미술가들과 작가, 영화감독, 건축가, 작곡가, 디자이너 등도 오늘날 서양 문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Ⅲ. 주요 방문지 연수내용

테이트모던(Tate Modern)

가. 방문개요

방문일자	2015년 3월 30일
접견자	리처드 토마스(Richard Thomason) ※ 테이트모던 프로젝트 초기 참여자로 현재 총괄 홍보담당 임원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modern
주소	Bankside, London SE1 9TG 영국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나. 시설개요

구분	내용
위치	영국 런던
관람시간	일~목 (오전10시 ~ 오후6시), 금~토(오전 10시 ~ 오후 10시)
주요기능	갤러리, 세미나룸, 강당, 선물상점, 전시실, 멤버스 룸, 레스토랑, 이스트룸 등
주요시설	현대미술 · 실험미술 전시, 카페, 세미나룸, 강당, 선물상점, 멤버스룸, 레스토랑과 바, 이스트룸 등
건립비용	2억달러 (50%는 국가복권지원금으로 총당-문화시설지원, 50%는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다. 테이트모던의 개발 배경

2000년 5월 12일 개관한 테이트 모던은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project)의 일환으로 템즈강변의뱅크사이드(Bankside) 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에 들어섰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던 화력발전소로 영국의 빨간 공중전화 박스 디자인으로도 유명한 건축가 길버트 스코트(Giles Gilbert Scott)에 의해 지어졌으며 공해문제로 이전한 이후 1981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영국 정부와 테이트 재단은 템즈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넓은 건물 면적과 지하철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 여건을 갖춘 발전소를 현대 미술관을 지을 장소로 낙점하고 국제 건축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위스 건축회사 헤르초크 & 드 뫼봉(Herzog와 de Meuron)이 테이트모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약 8년여 간의 공사기간 끝에 지어진 본 건물은 기존의 외관은 최대한 손대지 않고 내부는 미술관의 기능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조되었다.

총 높이 99m직육면체 외형의 웅장한 테이트 모던은 모두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가운데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그대로 솟아 있는데, 반투명 패널을 사용하여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내도록 개조하여 이 굴뚝은 오늘날 테이트 모던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 거리가 된 테이트 모던은 한해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라. 문화 공간으로써의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문화인프라 구축

템즈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교로 2000년도에 밀레니엄을 기념하며 만든 유일한 보행자 전용다리인 밀레니엄 브릿지이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무너지는 다리로도 나왔었는데, 다리폭이 좁은 편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고 독특하다.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다리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동인구의 동선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마. 테이트 모던의 구성 및 공간배치

테이트 모던의 미술품들은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현대미술, 실험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별로 살펴보면 1층은 본관 입구, 2층은 강 쪽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카페와 세미나룸, 강당, 선물상점, 전시실 등이 있다. 3층과 5층은 상설전시 공간이며 4층에서는 기획 전시가 이루어진다. 6층에는 멤버스 룸이 있으며 7층에는 레스토랑과 바, 이스트룸 등이 있다. 터번홀은 한 때 옛 발전소의 전기 발전기로 지어졌었다. 이 홀은 현대 예술가들의 특별히 계약된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 이용되는데, 매년 10월과 3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열리며 유니레버에 의해 후원을 받는다. 이 전시시리즈는 이 갤러리의 초기 5년동안 지속되기로 계획되었으나, 이 전시의 인기로 인하여 이 전시가 상당기간 연장되었다.

바. 도시 재생사업 성공사례

당시 테이트 모던을 기획 할 때는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로 제조업이 없어질 시기였다. 그 이유로 영국에서는 지금 자동차 공업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민하는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런 곳 이었다. 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임대주택들, 정부로 부터 지원이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자연적으로 범죄와 질병도 많았던 그런 장소였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의 건물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리빌딩을 통한 도시재생도 과감히 추진 하여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게 만들었다.

원래 도시재생 사업의 산물인 테이트 모던을 기획 했을 때는 연간 방문객을 200만명으로 계획하였다. 정부는 테이트 모던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을 창출하려는 고도의 지역 현안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간 50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세계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테이트 모던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모델로 세계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 또 하나의 시설물은 바로 밀레니엄 브릿지이다. 이 다리는 또 영화, BBC방송 매체를 통해영국, 런던을 상징할 때 항상 나오는 장소로 오늘날 테이트모던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명소이다

테이트 모던에 참여한 기획자들은 아이디어가 좋고 유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후 프로젝트를 응모해서 당첨이 1994년이고 공사개시는 1995년에 했었고 5년이 걸린 2000년 5월에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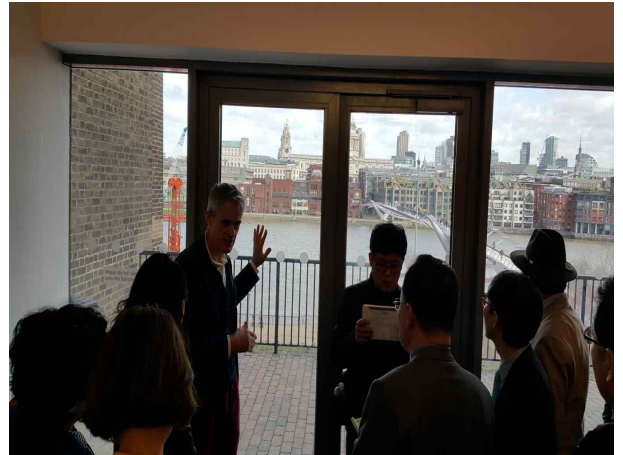
【테이트모던 외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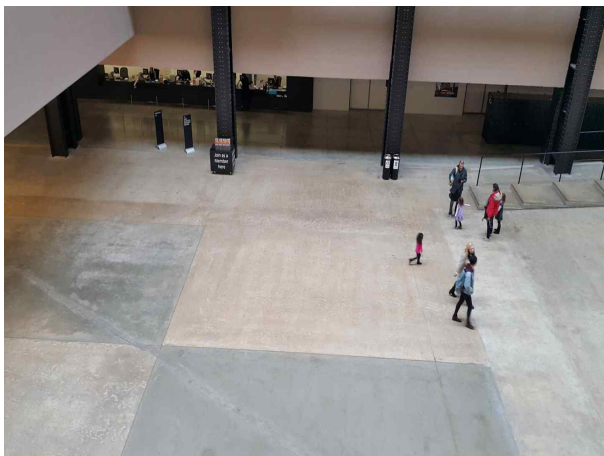
【테이트모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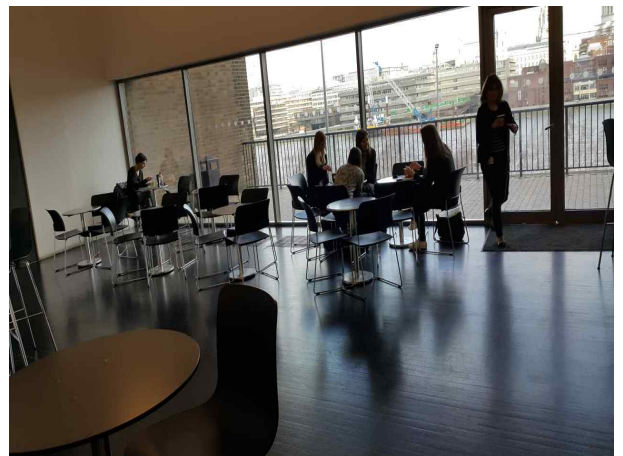
【관계자 브리핑】



【시설 및 운영현황 소개】



【내부 전경】



【내부 휴식공간】



우리구 적용방안

< 시사점 >













용도 폐기 된 화력발전소를 방치되어온 우수한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미술관을 건립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세계적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사례

< 테이트모던(Tate Modern)사례를 통한 능동로 문화의 거리 인프라 활용 방안 >

능동로변은 독섬한강공원, 청담대교 거리공원, 문화예술회관,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 등 걷고 싶은 거리와, 지하철 2, 5, 7호선 전철역의 역세권, 백화점, 호텔, 커먼그라운드, 스타시티몰 등이 밀집해 있어 타 거주지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자원이 많으나 불법주차 및 휴게공간이 부재하고 현란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특화가로내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유동인구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능동로 주변 지역 자원을 새롭게 연계하여 주변상권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도록 하여야 함.

-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특화가로 계획과
- 가로간판 및 보행중심 녹색가로 재정비
-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확보 필요
-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연속성을 갖는 시설물 도입
-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 포장면을 개선하고 보행 쾌적성을 증대

<능동로 주변 문화의 거리 인프라>

 <p>1 새창으로 열림</p>	<p>독섬한강공원 7호선 독섬유원지에서 한강쪽으로 내려오시면...</p> <p>자세히 보기 ></p>	 <p>2</p>	<p>청담대교 거리공원 능동로 거리공원은 2004년 걷고 싶은 거리 능동로 조성...</p> <p>자세히 보기 ></p>
 <p>3</p>	<p>자양동 양꼬치거리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출구를 지 한강둔치...</p> <p>자세히 보기 ></p>	 <p>4</p>	<p>광진문화예술회관나루아트센터 건대역에서 한강시민공원방향으로 더클래식500 쪽으로...</p> <p>자세히 보기 > 홈페이지 ></p>
 <p>5</p>	<p>건대역 로데오 거리 2·7호선 5번출구로 나오시면 유명 패션브랜드의 감각적인 ...</p> <p>자세히 보기 ></p>	 <p>6</p>	<p>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능동로 아트로드 조성사업의 하나로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문화예술...</p> <p>자세히 보기 ></p>
 <p>7</p>	<p>스타시티몰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앞에 위치한 스타시티 몰은...</p> <p>자세히 보기 > 홈페이지 ></p>	 <p>8</p>	<p>건대역 맛의 거리 지하철 2·7호선호선 건대입구역 화양동 방향으로 닭갈비...</p> <p>자세히 보기 ></p>
 <p>9</p>	<p>능동로 분수광장 건대입구역에서 건국대부속병원 방향 옛 민중병원터에는 휴식과 ...</p> <p>자세히 보기 ></p>	 <p>10</p>	<p>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다양하고 분위기 있는...</p> <p>자세히 보기 ></p>
 <p>11</p>	<p>광진광장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능동로와 ..</p> <p>자세히 보기 ></p>	 <p>12</p>	<p>광나루길 그린웨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광나루길을 따라...</p> <p>자세히 보기 ></p>

베드제드(제로에너지 생태주거단지)

가. 방문개요

방문일자	2015년 3월 30일(월) 14:00~16:00 예정
접 견 자	Insun Cha(Ree)
홈페이지	http://home2.btconnect.com/bedzedpavilion/
주 소	24A Sandmartin Way, Wallington, Surrey SM6 7DF 영국
 	

나. 베드제드 소개

영국의 왈링턴(Wallington)에 있는 베드제드(BedZED)는 제로 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의 줄임말로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주거단지를 뜻하며, 베딩톤(beddington)도시에 건설된 신생에너지를 적용한 세계 최초 친환경 저탄소 개발도시이다. 런던 중심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 떨어진 전체 면적이 1만 6,500m²의 가동 중단된 오물처리장을 매입하여, 2000년에 시작하여 2002년경에 개발 완료된 100가구 규모의 단독 연립 주택과 사무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2,500m² 크기의 친환경 빌리지로써 3층짜리 연립주택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Zero Energy Development

오늘날 급변하는 지구 환경 변화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극,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그 원인

인데 이것은 약 40%이상이 건축물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 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제로에너지 주택 개발을 말한다.

라. ‘베드제드’의 특징

① 주택환기 시스템 : 패시브 통풍 구조

건물의 지붕에는 건물 밖의 바람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통풍기를 달아 놓았다. 이 통풍기는 방향을 잡는 조정키가 달려있고 통풍기의 바람 관통관을 지나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내부 공기가 올라와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있는 자연환기로서 추가 에너지(전기를 이용한 환풍기)가 요구되지 않는 패시브 환기 시스템이다. 특히,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미세관을 통하여 열을 서로 교환시켜 환기시 내부와 외부 기온차로 인한 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② 저탄소생활, 신생 에너지 활용 : 열병합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초기에 저탄소 전기 생산에 제작 사용했던 열병합발전소(산업폐기물, 목재 조각으로 전기 생산)가 고장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전기 스토브대신 방한복을 입고 지내고, 모든 가구의 지붕과 창문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온수및 생활 전기의 50%는 신생 에너지등 태양 에너지로 하였다. 특히 온수미터를 사용하여 온수 사용을 줄이고 있다. 주민의 40%정도는 채소를 직접 농작하고 80%이상이 인근 지역의 로컬푸드 유기농 음식을 먹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운반시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화 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③ 철저한 단열 구조 : 에너지 절약형 건축

남쪽은 집, 북쪽은 사무실의 생활공간으로 지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식물을 키우고 차양등의 단열을 위한 발코니의 기능을

살렸다. 또한 베란다의 3중 유리창과 30cm정도의 단열재를 사용한 50cm 두께의 외벽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④ **저탄소 교통 환경** : 카 크럽(일종의 렌트카) 전기 공동차 도입 사용, 자동차 사용 절제

마을 주민들이 외부 렌트카 회사의 40대의 공동 전기차를 사용하여 카풀제이나 대중교통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마을에 1가구 1차량이하의 주차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의 마을에 사무실을 둠으로써 개인 차량운행을 최소화 하였다.

⑤ **재활용의 생활화** : 빗물 사용, 폐기물 재활용

빗물을 모아 필터링하여 화장실과 옥상의 정원을 가꾸는데 재활용 하고 있으며, 건축 재료는 재활용(소각하여 열 에너지 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 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인근 도시에 비해 약60%이상 줄었다고 한다.

⑥ **저탄소 생활의 효과**

입주자의 약 30% 정도는 저소득층으로 에너지 생활비가 부담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은 이웃 주민들보다 전기 사용량이 40%이상 줄었고, 온수 에너지 소모량이 약 80%이상 줄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웃 주민들 보다 연간 가스, 전기사용료가 약 70%이상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마. 우리 나라의 저탄소배출을 위한 신생에너지 활용

① **국내에서도 제로에너지 주택시대 본격화**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선보일 예정 이라고 한다. 이는 국토 교통부 R&D 과제이다.

② 노원구 국민임대 주택 실증단지

- 국토교통부 - 에너지 제로 실증단지 사업 공모

※ 세종특별시, 대구광역시, 서울시노원구 3군데 응모에서

최종 사업지에 노원구 선정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122가구(2016년 입주예정)
- 연면적: 17,200m²
- 전용면적 59m²기준, 연간 에너지 비용 81% 절감
- 연구 개발비 240억원, 서울시와 노원구가 부지 및 일반 건축비 202억원 투자
- 주택 특징
 - 지붕과 유리창에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전지판 설치,
 - 모든 가구는 남향배치
 - 벽면 단열재는 기존 15cm 두께의 2배인 30cm, 실내 공기조절을 위한 폐열 회수 환기장치를 사용해 집안에서 발생하는 음식 열, 가전제품의 열을 회수하여 재활용 가능
- 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 에너지를 50%까지 절감, 나머지 50%는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충당
- 비용 효과 : 국민임대주택(59m² 기준) 연간 총에너지 비용

787,000원에 비해 81% 줄어든 연간 15만원으로 기대

☞ 자료출처 : 한미글로벌 친환경사업팀 공개자료, 2015. 03. 24 환경일보

③ 강원도 인제군 : 풍력-소수력 발전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풍력발전소, 원통서리보 소수력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연간 6억 6000만원의 전기판매수익을 거두고 있고 2010년 부터 누계수익은 22억음.

☞ 자료출처 : 2015. 03. 18일자 에너지경제신문

④ 경남 거창군, 감악산 풍력 발전 : 패시브하우스, 에코에너지 파크 조성

경남 거창군은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패시브 하우스 설치, 에코 에너지 파크 조성 예정,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약 47ha에 21억원의 사업비로 에코에너지 파크를 조성해 에코에너지 학습장, 태양광, 태양열 발전 시설, 소형풍력발전시설, 소수력 발전시설, 빗물 재활용시설, 재활용 정글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자료출처 : 2015. 03. 18일자 에너지경제신문



【베드제드 외부전경】



【관계자 브리핑】



<주민공동사용 전기차>



【시설소개】

! 우리구 적용방안

< 시사점 >

무분별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됨에 따라 21세기는 “탄소 제로 경제의 시대”

<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시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소재 사용’ 으로 녹색 광진 도시 건설 >

① 광진구에서 계획중인 구립 어린이집(중곡1동, 능동), 관공서 신축 공사(광진 경찰서 등), 광장동 베드민턴 전용체육관, 그리고 자양 공공힐링센터 신축에 ‘베드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및 신생에너지 적용 건축 시공법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 건축

② ‘베드제드’처럼 저탄소 생활화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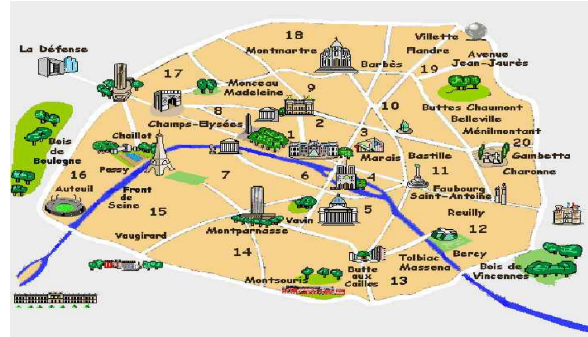

화장실 등 생활용수의 빗물 재사용, 건물 옥상에 태양열 패널 설치, 실내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남·북 방향 선택,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30cm두께의 외벽 단열재 사용, 3중 베란다 창문 및 차양 설치로 열관리 효율화

③ 공공시설물 설치 시 친환경 재료 사용 : 쓰레기통, 가로등, 보안등, 가로화분, 및 휴식공간을 위한 벤치 등과 교통시설물 제작·설치시에 친환경적 목재를 사용

파리시 17구 지역관리기업(Ragis to quaitier)

가. 방문개요

방문일자	2015년 4월 3일(금)
접견자	Mr. Bertrand Jullien(President) 외 1명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modern
주소	54 Avenue, Philippe-Aguste, 75011, Paris, France

나. 운영개요

- 시설명 : Passerelles 17, Regie de Quartier 여 17e Nord-Est
- 설립연도 : 2005년
- 시설성격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 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민간단체임.
- 인력현황 : 유급직원 20명, 기타 10명(기업체 등)
- 연간예산 : 약 60만 유로(약 25%는 보조금, 75%는 수익활동)
- 운영방식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의회 의원, 주민, 제약회사 대표, 여성단체 등)

- 주요사업 내용 : 직업활동 경험은 있으나 거의 4, 5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과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20대 젊은이들을 상대로 2년 동안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직자들을 사회에 통합 시키는 역할을 함.
- 자활지원 사업 : 지역주민이 지역사업에 자원봉사자 또는 피고용인으로 참여
- 재 활 용 사업 : 주민 자신들에게 저렴하게 판매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주로 공공부분의 2차 청소와 도심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 묘지관리
- 피고용자 교육 : 재취업 및 정규직 기회부여 교육 및 알선
- 도서, 집수리 공구 대여 및 문화행사 체험 등

다 지역관리기업

지역관리기업(réie de quartier)은 1970년대 프랑스 루베(Roubaix)시 알마야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전투적인 지역철폐반대운동에서 기원하였다. 지역철폐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구역을 재구조화시키는 조직으로서 도심민중 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을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민간단체(association)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역관리기업이 존재하는 지역은 실업률이 심한 편이다. 프랑스 평균 실업률이 8%인데 비해 지역관리기업이 있는 지역들의 실업률은 20-25%이다. 개인주의로 인해 고립된 것을 같이 잘 살아보자, 가난 하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이념이며, 희망사항이다. 지역관리기업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관리기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민 주거지역에서 조직된다.

둘째, 낙후지역관리기업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조직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150개 정도의 지역관리기업이 존재하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존재하는 지역은 실업률이 심한 편이다. 프랑스 평균 실업률이 8%인데 비해 지역관리기업이 있는 지역들의 실업률은 20-25%이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부족했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지역관리기업 방문】



【관계자 브리핑】



우리구 적용방안

〈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서비스를 광진구청이 주요 구매자로 나서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자활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이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맥락에서 이어진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후 우리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고 현재 광진구의 사회적기업중 인증을 받은 9개 업체를 포함하여 1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높은 재정의존도 및 재정의 불안정, 미흡한 경영능력, 비전문적이고 빈약한 인력 등의 문제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기업에 지나지 않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고용의 지속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노인돌보미, 증증장애인 활동보조, 보건분야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목표액 설정 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정부와 우리구가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을 우리구청이 주요 구매자로 나서서 보조금 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위한 판로를 확보할수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국립 미테랑 도서관

가. 방문개요

방문일자	2015년 4월 2일
홈페이지	www.bnf.fr/
주 소	Quai François Mauriac, 75013 Paris, 프랑스
 	

나. 도서관 소개

1368년 루이11세에 의해 왕립 도서관으로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서 1988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기점으로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이 12억 유로라는 막대한 돈과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설한 세계 최고 시설과 규모의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다.

다. 시설 및 규모

- 시설 및 규모
 - 부지면적 : 365,178m²(약 2만평)
 - 건물 높이 : 79m(25층 : 지상 18층, 지하 7층)
 - 자료실 면적 : 40,000m²
 - 중정 공원 : 약 4,000평 넓이의 중정에 나무와 식물들이 빼곡한 공원
 - 건물 구성 : 거대한 네권의 책이 90도 펼쳐진 모양의 건물이
직사각형 공간의 모퉁이마다 세워져 있는 형상으로
각각 주제별로 자료실로 구성

- * 시간의 탑 : 철학, 종교, 역사, 지리 등 인문과학 관련자료실
- * 법의 탑 : 정치학, 경제학, 법학, 정부 간행물 관련 자료실
- * 숫자의 탑 : 과학, 기술 관련 자료실
- * 문자의 탑 : 문학, 언어, 예술 관련 자료실

라.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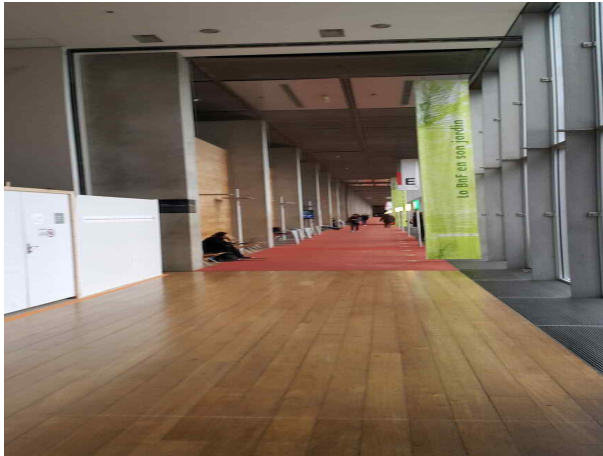
- 주변이 습지라서 그런지 외벽이 유리로 에워싸여져 있으며 햇빛으로 인한 책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목재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 이들을 통해 회전문처럼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 직사각형 대지의 모퉁이마다 마치 책을 90도 정도 벌려 세워놓은 듯한 건물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며, 그 네 빌딩들은 법 숫자 문자 시간으로 각각 명명되어 있다고 한다.
- 보관 항목이 약 4천만건 이상이며 그 중 책이 약 1,400만 권이나 되며 열람실은 35,000석이나 되고, 직원이 약2000명 정도나 된다.
- 중정에 있는 공원은 마치 수풀이 우거진 녹원과 같이 도서관에서 출입은 안되고 시야 제공만 되지만 머리를 식히기 위한 풍경으로는 충분하다고 한다.
- 깔끔하고 넓은 1층 로비에는 바닥은 전체가 카펫이 깔려있고,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어 휴게실 개념의 도서관으로써 마치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 도서관이다.
- 층별로 입장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단순히 구경목적의 입장이 불허하고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볼 수는 있다.
- 또한, 미테랑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장소라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 매년 여러차례 문화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콘서트,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문화 공간이다.



【도서관 녹지공간】



【도서관 부지 내 영화극장】



【내부 시설】



【내부 시설】



【외부 시찰】



【조감도 모형】



우리구 적용방안

< 시사점 >

단순히 책을 보는 장소라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 매년 여러차례 문화 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콘서트,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문화 공간

< 한강을 품은 유일한 구립 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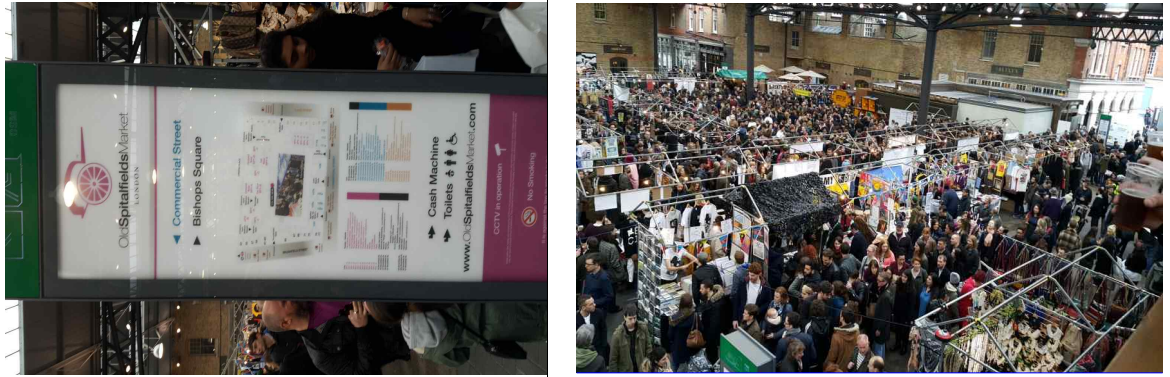
① 2014년 최우수 도서관 선정 - 대통령 표창

- 주민 참여 재능 기부 활성화, 무한상상실 운영, 300여개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와 도서관 문화진흥에 이바지

② 미테랑 도서관과 비교

- 정보 도서관 주변에 있는 북쪽의 아차산 전망, 남쪽의 한강변 광나루길과 구름다리, 전망 휴게실 등으로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공원 휴식 공간 제공
- 문화 공간 제공: 도서관에서 시사 전시회 등 문화 행사 개최
- 1층에 카펫이 깔린 깔끔하고 넓직한 자유스러운 주민 열람 공간제공 (쇼파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게 독서하는 주민 문화 휴식 공간)제공

올드 스피탈필즈 마켓[Old Spitalfields Market]

방문일자	2015년 3월 28일
홈페이지	http://www.visitspitalfields.com
주 소	105a Commercial Street, Spitalfields, London, E1 6BG
	

런던의 가장 오래된 마켓 중 하나로 리버풀 스트리트 역 근처에 위치한다. 예전부터 과일과 채소 시장으로 명성을 쌓아 왔지만 최근 이루어진 마켓 재건축을 통해 재래시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마켓 내부를 리모델링해 모던하고 깨끗하다.

-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마켓 내의 레스토랑과 숍만 오픈한다.
- 목요일은 앤티크와 빈티지 마켓이 들어선다.
- 금요일에는 패션과 아트 관련 마켓이 선다.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그림, 직접 만든 액세서리 등 재미난 물건이 많이 있다.
- 일요일에는 빈티지부터 그림까지 모든 상점이 들어서 볼거리가 풍부하다.



우리구 적용방안

<올드 스피탈필즈마켓(Old Spitalfields Market)과 광진의 재래시장 현대화>

1. 올드 스피탈필즈마켓(Old Spitalfields Market)

영국 런던 리버풀 스트리트 역으로부터 약 5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과거 재래시장을 현재적인 시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성공한 재래시장 현대화를 이룬 시장이다.

1682년경에 채소, 과일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재래시장은 350여년이 지난 1991년 재래시장을 현대적인 시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광장 각종 악세사리, 골동품, 카페, 맥주와 와인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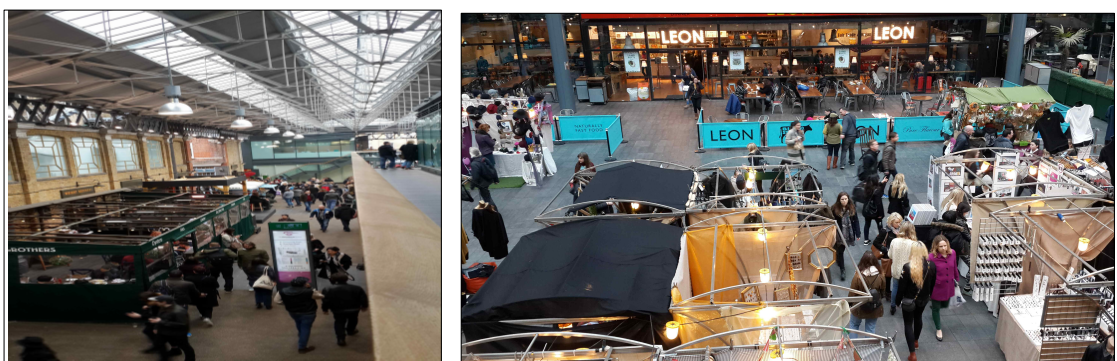
올드 스피탈필즈마켓의 지붕은 우리나라 일산에 있는 킨 텍스처럼 덮여 있어서 전시판매도 가능 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재래시장의 모습은 찾아 보기 쉽지 않지만 레스토랑, 카페, 바, 표도주판매점, 골동품가게, 패션 의류, 신발 및 잡화, 기프트코너, 프리아트마켓, 액세서리, 디자이너 그림 등을 판매를 하는 잘 정비 된 동선이 엮보였다.

중앙에 있는 광장은 갖가지 소매상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레스토랑, 카페, 인테리어샵등은 가장자리에 꼭 이층까지 둘러싸고 있다. 특히 시장 광장은 젊은이들이 포도주나 맥주 마시면서, 음악과 함께 춤도 추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또한 광장에는 노점인 패션, 공예, 음식, 일반적인 시장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시장 광장의 노점은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며, 전시장, 박람회장 등 각종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골동품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빈티지(오래된) 액세서리, 빈티지 가구, 빈티지 의류, 빈티지 와인, 빈티지 공예, 빈티지 장난감등 각종 골동품 전시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패션의 날로 패션쇼와 지갑 등 패션관련 액세서리, 아티스트들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날이라고 한다.



이울러 광장 옆의 카페나 레스토랑을 지나면, 노점에 패션디자이너들이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는 마켓이 잘 정비 되어 있다
국내기업인 삼성이나 엘지 등의 회사가 스마트폰 홍보를 위한 비즈니스 전시장으로 활용하였다 한다.

올드 스피탈필즈마켓 시장을 현대시장으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기존시장 2/3에서 인근 시장 확장에 대한 갈등은 있었지만, 영국 런던은 런던시장 전문업체인 Ballymore Group에 의해 지금의 현대시장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2. 광진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 개발로 현대시장으로 탈바꿈해야

우리나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장경영혁신사업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가 그리 쉽지 않다. 소비의 다양화·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 온라인 쇼핑 확산 쇼핑의 편리성, 신용카드 사용제한,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쇼핑의 편의시설 면에서 대형마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2008년 현재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중 상인회가 있는 시장은 56.5%로 상인 조직화율이 낮은 수준이고, 또한, 시장상인의 노령화(평균연령 53세)로 경영 능력이 취약하고, 상거래 현대화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신용카드 취급률 46.4%, 가격표시율 39.8%,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율 66.7%, PC보유 점포 13.3% 등이다.

그간의 정부지원으로 시설노후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고객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소비자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감소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책도 입안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 할 때 몇몇 전통시장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살려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현대 쇼핑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광진구에도 4개의 인정시장과 소규모의 시장이 골목상권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우리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매월 하루 서울시에서 전통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특정 품목을 산지에서 직송하여 판매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며,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대학을 통해 고객서비스 등 경영지원정책도 펴고 있다.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확보, 고객쉼터 등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현대화 등 획일적인 지원으로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고객을 끌어 들이기에는 별 효과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인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여 하여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물품구매 장소로서의 유용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영국 런던의 올드 스피탈필즈마켓의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리모델링한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광진구 전통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대적인 시장으로 쇼핑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려면 시장의 공동 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시장의 공동 재개발은 상인, 점포주, 광진구와 서울시, 중기청, 개발업체와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시장 재건축을 해야 한다.

노론산시장을 예를 들면 오론산시장 규모를 1/3로 보고, 단독 주택지역 2/3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택이 공존하여 개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재래 시장 규모로는 재건축이 어렵고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의 주택의 개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재건축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그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누면 가능 하리라 본다. 올드 스피탈필즈마켓처럼 2층 이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3~5층 까지는 오피스 기능을 넣고, 5층 이상은 주택을 넣어 공존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롯본기힐즈처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상업용 건물에 지분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은 임대 점포를 얻어 대형마트처럼 공동계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롯본기힐즈처럼 개발업체에게도 문화센터 등 운영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공동 개발 방식으로 현대시장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 개발한 시장에 로컬 푸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형마트보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을 가져 갈 수 있고, 아울러 도농 협력으로 농촌도 살려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요즘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로컬 푸드를 만들려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산지에서 아침에 농축수산물을 직송한다면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바로 전달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 방문개요

방문일자	2015년 3월 29일
홈페이지	http://www.coventgardenlondonuk.com
주 소	지하철 Covent Garden역에서 도보 2분
	

원래 수도원(Covent) 부설 야채시장이 있었던 자리다. 1974년 야채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펍과 상점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의 코벤트 가든이 탄생하게 됐다. 붉은 벽돌 건물이 창고처럼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은 이곳이 야채시장이었던 때의 흔적.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시장이 서지만 옛날과 같은 야채시장은 아니다. 크게 애플 마켓과 주빌리 마켓 등이 열리는데, 애플 마켓은 수제 양복과 액세서리를 주로 파는 곳이고 주빌리 마켓은 의류, 수공예품, 앤티크 등을 파는 곳이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코벤트 가든은 일 년 내내 광대들이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다.



〈코벤트 가든(Convent Garden) 통한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 제안〉

1. 코벤트 가든 현황

지하철 Covent Garden역에서 도보 2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라팔가 광장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도심 중앙과 매우 가까우며, 오드리 햅번이 주연한 '마이 페어 레이디'의 촬영장이라고 한다.

중앙에 들어서면 지하에서부터 3층에 이르기 까지 뽕 뚫린 길거리 공연을 하는 가든이 중앙에 들어서 있다. 가든 주변에는 세 개의 마켓 등 쇼핑센터와 극장가.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등 한국의 대학로를 연상하게 한다. 가든 중앙에는 거리 공연이 시간에 따라 지정 받은 문화공연 팀들이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관광 명소이다. 음악을 하고, 이벤트도 하고, CD도 판매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으며, 많은 군중들이 즐기고 있었다.



중앙 가든 주변에는 수제품의 예술작품과 디자인 제품을 파는 Apple Market이 있고, 기성품이나 선물 용품 등을 판매하는 Jubilee Market 있고, 액세서리, 핸드메이드비누, 홈웨어 공예품, 어린이 옷 등을 파는 East Colonnade Market이 있다.



코벤트 가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http://www.coventgardenlondonuk.com>를 참고하면,

코벤트가든은 수도원 옆에 있는 농지였다. 13세기경부터 코벤트 가든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은 웨스트민스터의 성 베드로 수도원으로 집결되어 수도원 및 런던 시민들의 식량으로 이용되었다 한다.

수도원이 사라진 코벤트 가든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 17세기 들어 베드포드 백작이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이니고 존스에게 코벤트 가든에 시민 광장을 설계하도록 의뢰했다. 당시 백작은 광장에 교회나 창고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지만 존스는 그에게 "영국에서 가장 근사한 곡식 창고를 보시게 될 겁니다."하고 대답했다. 이후 코벤트 가든에는 매춘굴과 찻집, 터키식 목욕탕, 가게 등이 들어섰고 1666년의 런던 대화재 이후에는 영국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했다.

도로가 정비되고 1820년 3천 마일에 달하는 운하의 개통으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코벤트 가든 시장은 전성기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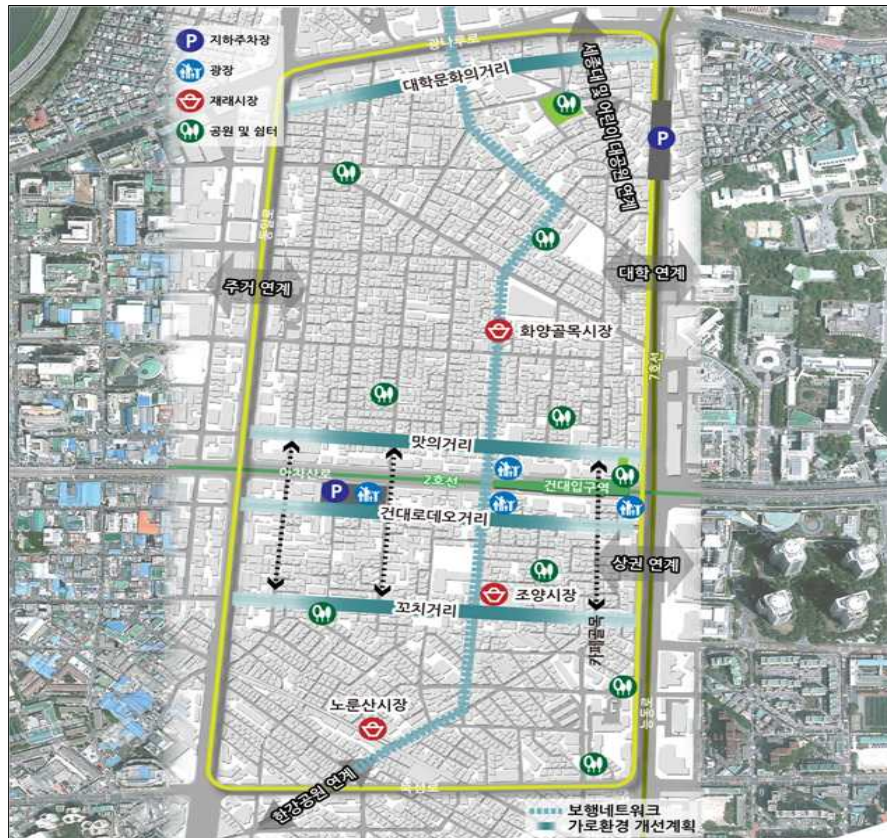
1830년대에는 노점을 열 수 있도록 철골과 유리로 된 지붕이 설치되었다.

1974년 코벤트 가든의 청과물 시장은 템스 강 남부의 나인 엘름으로 이전했고 현재 코벤트 가든에는 쇼핑센터 및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으며 거리 공연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이다.

코벤트 가든은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영화의 여주인공 일라이자는 코벤트 가든에서 꽃을 파는 아가씨로 등장하는데 코벤트 가든에는 1880년대부터 꽃 시장이 들어섰다

2. 건대역 주변 대학문화거리 조성 제안

건대 대학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비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 화양동과 자양4동 노론산 시장에 이르기 까지 특화거리를 만들어 문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광진닷컴에서 4월 10일 보도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진구는 10일 오전 화양동주민센터에서 화양동대학문화거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점 밀집지역인 화양동 맛의 거리 일대를 주차공간 확보, 가로장애물과 간판정비, 문화공간 확보 등을 통해 문화와 먹거리가 있는 대학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로하고 지난해 7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오는 6월 과업의 최종 준공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화양동과 자양4동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업은 아름다운 경관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오는 2016년까지 특화거리 조성 계획,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 지하주차장, 문화광장, 능동로 정비, 대학문화의거리, 로데오거리, 중국 음식문화의 거리 특화거리 조성계획,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재래시장 접근로 개선 및 활성화계획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건대입구역 반경 2km에는 1일 20만명의 유동인구가, 건대입구역 상권에 1일 61,857명의 통행이 있다. 화양동 맞의 거리는 1일 유동인구 2만명 이상으로 이동이 활발하며 지하철을 이용한 이용객이 많다. 이 지역은 전 구간 포장 및 공중선 지중화,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공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활동공간 확보와 맞의 거리의 특색을 나타낼수 있는 입구게이트 설립도 필요하다.

중기계획으로 능동로를 특화거리로 유도하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문화의 거리는 지중화 미시행 구간의 지중화를 추진하고 뷰티, 멋을 테마로 한 프리마켓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로데오거리는 이동식 화분대를 도입하여 가변적 경관 및 생동감을 부여하고 문화 공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중국음식문화의 거리는 지중화사업 및 포장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양삼거리에서 노론산시장에 이르는 구간은 재래시장 접근활성화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비보이, 버스킹, 거리공연을 상시 개최하고 유기농먹거리 및 뷰티마켓 조성, 예술창작소 조성, 미소사진, 참여미술 전시전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기존 도시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 보완, 공중선 정비, 특화된 명소 만드는 계획으로 임시방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인들이나 건물주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런던의 코벤트 가든처럼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양동 건대맛의 거리 상업지역과 자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2종, 3종의 주택들을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하거나 신 상권 창출을 위해 비교적 주택 가격이 저렴한 자양4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통합 개발하여 신개념의 대학 문화 거리가 조성 되어야 한다.

젊음의 길거리 공연 문화, 젊음의 먹거리, 패션, 카페, 감성주점, 클럽문화 등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100여년을 내다 볼 수 있는 대학 문화의 거리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 참여하는 대학문화 거리 조성을 해야 한다. 차 없는 거리, 문화와 시장이 공존하는 거리를 위해 건물주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체 상권으로 대학문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자산가치도 하락 할 것이다. 입지 조건이 좋은 동부권의 대표적인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 광광 수입도 증대 시키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창작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올해는 서울시 2030 주민참여형 생활권 기본계획을 건대입구 주변으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준비하고 있다. 화양동, 자양4동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대학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IV. 기타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 버로우마켓 (Borough Market) 】

영국 런던 서더크(Southwark)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런던브리지 남단의 서더크 대성당 남쪽 버러하이 스트리트에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식품 시장이며,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도매 시장은 주중에도 열리지만, 소매시장은 목~토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과일과 야채를 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1276년에 문서에 처음 등장하며, 건물은 1851년에 설계한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지인의 생생한 일상을 엿볼 수 있으며, 1276년 문을 열어 런던에서 가장 오래 된 재래시장이다. 장 서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동네 주민과 여행자들로 시장은 북새통이 된다. 세계적인 규모의 식품 시장이며,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런던 시민의 부엌이라도 불리며, 직접 재배하고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기, 해산물 등을 구할 수 있다.

【 타워 브리지 】

국회의사당의 박변과 함께 런던의 상징으로 꼽히는 타워 브리지. 조명을 받을 때면 하얗게 빛나는 야경이 장관이다. 1894년 총 길이 805m로 완성되었는데, 양 옆으로 솟은 고딕 양식의 탑이 무척 인상적이다. 탑과 탑을 잇는 산책길에서 바라보이는 전망은 언제나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가운데가 열리도록 개폐형으로 만들어진 타워 브리지는 다리가 열리는 모습이 장관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 자주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연 6,000회 정도 열렸던 다리가 이제 연 200회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국회의사당】



3만 3000m²에 이르는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인 영국국 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뾰족한 지붕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로, 지금은 세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영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본래 이곳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있던 자리였는데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1834년 발생한 화재로 거의 다 타버려 그 자리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중앙 홀을 경계로 남쪽은 상원, 북쪽은 하원 의사당이다. 마루의 총 길이만 해도 3.2km에 달하고 방의 수가 무려 1,000여 개라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하기도 힘들다. 원래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IRA 폭탄 테러 이후 일반인 관람이 금지됐다. 대신 국회 회기 중에 방청이 가능하다

【 웨스트민스터 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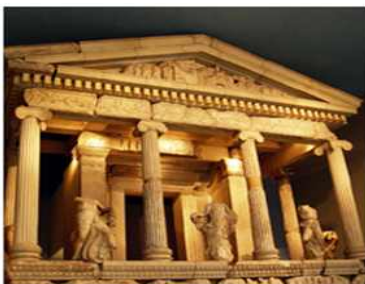
영국 왕실의 웅장한 사원. 명성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과 위인들이 잠든 곳이다.

'수도원 중의 수도원'이라는 의미로 'The Abbey'라고도 불린다. 11세기 참회왕 에드워드가 세운 세인트 페트로 성당이 지금의 수도원의 모체이다. 13세기에 헨리 3세의 지시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고딕양식으로 완성되었다. 대부분의 왕이나 여왕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으며 아직도 국가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진다. 지금은 사원의 절반이 국가의 교회로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박물관으로 쓰인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안으로 들어가면 대리석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격조 높은 영국 왕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대관식이나 왕족 결혼식 등이 거행되는 휘황찬란한 방은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곳이다



【 대영박물관 】

1753년 사망한 개업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한스슬론 경이 6만 5000점의 수집품과 4만 5000권의 장서를 자신의 유언 집행자에게 2만 £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기증하자 이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정부에서는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wrma으로 말하자면 복권을 발행해 30만 £의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이것이 현재의 대영박물관의 시작이다. 그리고 개관 전에 옥스포드 백작 로버트 해리와 에드워드 해리가 고문서 컬렉션을 기증하고 조지 2세도 왕립 도서관 장서를 기증해 컬렉션이 더욱 풍부해졌다. 개관은 1759년에 하였으며 일반에 공개된 최초이 박물관이었다. 일반에게 공개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고 입관자도 하루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 하이드 파크 】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정원이었으나, 헨리 8세 때부터 왕실의 사냥터로 사용되다가 1637년에 일반에게 공개됐다. 런던 도심에 위치한 140만㎡의 면적을 가진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공원 가운데에는 ‘서펜타인’이라는 인공호수가 있고, 근처에 피터팬 동상도 있다. 존 나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 따 만든 ‘마블 아치’가 하이드 파크의 정문 격이다.



【 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 】



▶ 파리 최초로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 뤼소정원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녹색으로 우거진 오아시스가 탄생했다. 이 거리의 이름을 딴 뤼소정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1950년대 이후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철로 주변을 정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뒤흔들었다는 결실로 맺어진 것이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을, 지역에는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성과의 상징이 되었다.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

▶ 우범지대를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주민이 직접 협회 조직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로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냄새나는 곳이었다. 나중에는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주민협회를 만들어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자체 협회만으로는 정원관리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청과 시의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 구청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자 이 장소를 공공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였다. 이 후 파리시와 프랑스 국철 간 협약을 맺은 후 협회가 정식으로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 뒤흔들기의 세 가지 기능 : 체험농장, 현장교육, 커뮤니티활동

뒤흔들기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미니체험농장이다.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서 주말농장처럼 가꾸도록 하고 있다. 손바닥만 한 땅 한 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현장교육장이다. 개인 회원은 물론 인근 학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세 번째,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다. 협회에서는 뤼소정원에서 주민들의 생일잔치나 커뮤니티 행사, 이벤트 등을 열어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뤼소정원을 완전히 개방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주민과 관광객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 라데팡스 】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가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을 중심축으로 도심에서 8km 지점 세느강변에 조성된 파리의 부도심으로 46만평의 땅위에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



시설이 고층·고밀도로 들어섰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지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EPAD)는 지난 58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 개발 구상을 마련, 80~90년대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명물이 됐다. 제각기 다른 특색있는 모양의 고층 빌딩이 인상적

이었고, 일반 도로와 지하철을 모두 지하화 하여 지상으로 올라오면, 차 한대 없는 조용하고 넓은 보행로와 깨끗한 고층 건물, 60여 개의 예술품이 라데팡스의 전경을 만듦.현대 도시개발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단위 지역을 고층·고밀도로 개발할 때 건물을 비롯해 지하철, 주차장, 일반교통, 보행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기법을 라데팡스식 개발이라 한다.

【 파리 개선문 】

개선문은 그 이름대로,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명령으로 건립되었다. 공사는 1806년에 시작했지만 나폴레옹 1세의 실각, 왕정 복고와 7월 혁명 등 격동의 시내를 거치느라 1836년이 되어서야 완성했다. 나폴레옹 1세는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숨을 거둬 완성된 개선문을 보지 못했지만, 유해는 1840년에 개선문 아래를 지나 파리로 귀환해 앵발리드에 매장되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개선문 아래에 매장되기도 했다.

개선문은 로마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대로 본떠 설계되었는데, 로마 시대에 개선문 아래로 행진하도록 허락된 자는 영웅뿐이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한 황제와 그 부하들이 개선문 아래로 행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런 일이었다.

파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때 4년간의 독일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파리를 해방시킨 샤를 드골 장군이 이 개선문 아래로 당당히 행진했다. 개선문이 여행자에게는 파리의 거리를 장식하는 관광 코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프랑스 전쟁의 역사를 아로새긴

기념할 만한 건축물인 것이다. 전망대 아래층에는 소규모이지만 역사박물관도 있다. 나폴레옹 1세의 장례식을 비롯해 국민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국장, 무명용사의 매장 등 개선문에서 행해진 일에 관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 파리 베르사유 궁전 】

베르사유 궁은 지금까지 지어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궁전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를 위해 지어진 이 궁전의 엄청난 규모와 웅대한 건축 양식, 내부의 그림과 조각에 사용된 고전 속의 영웅 이미지들, 그리고 광대한 정원은 부유함과 군주제의 절대 권력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이곳은 원래 작은 마을이었던 곳에 루이 13세가 1624년에 지은 사냥 별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은 루이 14세는 수도인 파리의 바쁜 나날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1660년부터 이 별장을 증축했고, 1682년 베르사유에 수행원들이 거주할 마을이 딸린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했다. 궁전의 수천 개의 방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방은 아마 167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거울의 방'일 것이다.

훌륭한 샹들리에의 불빛에 비친 우아한 거울들이 높은 창문으로 이루어진 회랑과 그 바깥으로 보이는 정원을 반사한다. 왕이 파리 외부의 지역을 택해 옮겨간 것은 단순한 변덕은 아니었다. 왕궁을 베르사유에 위치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정부 고관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궁전 내에 살게 되었고, 그는 군주로서 더 강력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귀족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들이 왕궁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왕은 그들에게 감시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고, 일부러 부조리할 정도로 까다롭게 만든 궁정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존경을 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중앙 집권 통치는 절대 권력을 향한 그의 의지와 지방 도시에서 경쟁할 만한 권력의 중심지가 생겨나는 일을 막고자 했던 그의 노력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루이 14세의 뒤를 이은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모두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다. 프랑스 혁명(1789~1799) 이후 이 거대한 궁전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무너져 버린 군주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곳은, 정치권력이 파리로 되돌아가게 되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을 빼앗긴 채 텅 빈 건물로 남게 되었다



【 파리 에펠탑 】

에펠탑은 센 강 서쪽 강변에 드넓게 펼쳐진 샹 드 마르스 공원 끄트머리에 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 때 구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세워진 탑이다. 높이 301m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였다. 총 무게는 9700t으로, 철기둥을 잇는 리벳을 약 250만 개나 사용했다고 한다. 에펠탑 건축 당시에는 우아한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며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의 모습을 보기 싫어 파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내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밖에서 바라보는 에펠탑도 좋지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파리의 경관도 특별하다. 전망대는 세 군데 있으며, 다리 4개의 동쪽 코너와 서쪽 코너에서 들어갈 수 있다. 지상 57m의 제1전망대, 115m의 제2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다음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상 274m의 제3전망대까지 올라간다.



【 로마 MACRO(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Rome) 】

1990년 오스트리아 국민 맥주인 Peroni공장을 개조하여 전시했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6개의 전시장을 추가, 2002년 공식적인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2004년 프랑스의 건축가 Odile Decq에 의해 리모델링 되었으며 현대 작가들의 행위 예술과 설치 작품 등을 전시해 놓았다. 남녀노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파리 루브르 박물관 】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가량에 이른다.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루브르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설치돼 있다.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 밉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 당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유리 피라미드 아래로 들어가면 지하에 신설된 나폴레옹 홀로 이어진다. 안내 센터, 매표소, 서점, 물품 보관소, 뮤지엄 숍 등이 있다. 안내 센터에서 한국어 팸플릿을 받아 두도록 하자. 컬러판으로 주요 작품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전시관은 리슐리외(Richelieu)관, 드농(Denon)관, 실리(Sully)관으로 나뉜다



【 파리 몽마르트 언덕 】

몽마르트 언덕은 베를리오즈나 네르발 등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소박한 예술가들이 생활했던 곳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곳은 초상화를 그려 파는 신인화가

들이 모이는 테르트르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의 가로로 하얗게 솟아있는 사크레 쿵 르 대성당(성심성당)이 있다. 또 빨간 풍차로 유명한 카바레 물랭루즈는 로트렉이 그곳에서 일하는 창부나 무희들의 가난 하지만 소박한 생활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다. 몽마르트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 초기 파리의 주교 성 드니가 순교한 땅이라는 뜻으로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과 로마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영혼을 모신 산 몽스 마르스에서 온 말이라는 설이 있다. 유래가 어떻든지 간에 19세기 초까지는 풍차가 돌아가는 시골이었던 곳이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화가와 시인, 외국인이 살게 되는 예술의 언덕이 되었고 지금은 파리에서는 꼭 보아야 할 관광 명소의 하나가 되었다.



〔 로마 바티칸 시국 〕

성 베드로의 묘지가 있으며 성지 순례지라는 점에서 바티칸은 기독교 역사와 밀접하다. 더욱이 바티칸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이자 위대한 창조물로서, 16세기 이후의 예술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1929년 2월 11일 라테란(Lateran) 협정을 통해 독립국이 된 바티칸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50ha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로마의 이 작은 지역이 인류 유산에 미치는 중요성은 보잘것 없는 영토와는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크다. 처음에는 일시적이었지만,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이후 줄곧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바티칸은 고대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고고 유적지이다. 또한 교황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가톨릭의 성스러운 도시로서, 기독교도와 비(非)기독교도들의 중요한 문화적 기준점들 중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티칸의 찬란한 과거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건축적·예술적 발전을 가능케 했다. 교회와 궁전 역시 그런 역사적 토대 위에 건축된 것들이다. 산피에트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가장 훌륭한 건축가의 지도 아래 16세기에 재건되었다. 대성당 아래쪽에는 칼리굴라(Caligula)와 네로(Nero)가 이용했던 원형 극장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와 이교도 묘지가 함께 있는 1세기 로마 시대의 대규모 네크로폴리스 유적과 더불어 콘스탄티누스가 처음 세웠다는 바실리카 유적도 아직까지 산피에트로 대성당 아래에 있다

〔 로마 콜로세움 〕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Amphitheatrum Flavium)'이라고 한다. 플라비우스 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 본래는 비공식 이름이었던 콜로세움의 유래에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청동상과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는데 중세에는 그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글라디아토르의 시합과 맹수연기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피지배계층의 관점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잔인한 측면이 있으나 고대 로마 시민들에게 원형경기장은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그 내용을 즐기는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었다.

한편, 로마 정치가들에게 원형경기장은 시민드르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며 때로는 로마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공간이었다. 직경의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이고, 외벽은 높이 48m로 4층이며, 하단으로부터 도리스식·이오니아식·코린트식의 원주가 아치를 끼고 늘어서 있다.

내부는 약 5만 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 로마 트레비분수 〕

로마에 있는 분수 중 최고의 걸작이자 가장 인기 있는 분수. 트레비 분수는 세 갈래 길(Trevia)이 합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트레비 분수에 가면 전 세계 동전을 모두 볼 수 있다. 분수를 뒤로 한 채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1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2번 던지면 연인과의 소원을 이루고, 3번을 던지면 힘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이다.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소원을 빌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장면도 이곳을 한층 낭만적인 장소로 기억하게 한다. 이 분수 가운데에 있는 조각상은 바다의 신 넵툰(포세이돈)이고, 그의 아들인 반신반어의 바다의 신 트리톤이 나팔을 불면서 이끌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각각 잔잔한 바다와 격동의 바다를 상징하는데 이 아름다운 배경 조각은 피에트로 브라치의 작품이다. 넵툰 신 좌우에 있는 석상은 풍요와 건강을 상징한다



V. 기타 제안사항

유럽 비교시찰을 통한 우리구 세외수입 확대 방안

1. 우리구 재정공시 현황

광진구청에서 공시한 2015년 재정공시에 의하면,

- ◆ 우리 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947억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자치단체 평균액(3,494억원) 보다 320억 원이 많다.

※ 동종자치단체 : 7개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자치구 69개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1억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72억원
- 기금 및 보전수입 등은 574억 원이다.

- ◆ 우리 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44%(동종평균25.7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82%(동종평균42.53%)입니다.

- ◆ 우리 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 원의 적자이다.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인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기금 수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의 전출된 수입의 경우 수입에서 제외되어, 기금수입(2,193백만원)에 비해 지출(6,561백만원)이 많아 일반.특별회계의 37억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6억 6천만원의 적자 발생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체수입의 비중은 비슷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보편복지사업 등의 확대에 일반회계 세입비율중 보조금 세입비율이 40.75%로 매년 늘어나고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구 자체부담 비율도 높아져,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자체 수입의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광진구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1억원 중 지방세(재산세 + 등록면허세)는 64,304백만원으로 전체재원 중 1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은 29,738백만원으로 8.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적세외수입(22,963백만원)은

재산세임대수입(241백만원), 사용료수입(10,532백만원), 수수료수입(3,127백만원), 사업수입(374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8,207백만원), 이자수입(480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6,774백만원)은

재산매각수입(1,261백만원), 부담금(20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2,705백만원), 기타수입(508백만원), 지난년도수입(2,280백만원)이다.

2. 자체수입을 증대를 위해서는 세외 수입을 확대해야 함

자체수입 중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에 영향이 크므로, 현재 부동산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는 소폭 상승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등록면허제도 경기 활성화의 결과에 따라 세부의 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성장 및 소득의 양극화, 자영업의 점진적 몰락 등을 감안하면 세수확대를 기대 할 수 는 없다.

결국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국런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 경직된 정책 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은 상위법에 따라 안 된다는 경직된 행정이다. 반면에 런던 등 유럽은 유연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 중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90년대 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듯이 이제는 세외 수입 확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유연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 사무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개혁을 혁신적으로 푸는 것을 국정 기조로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풀어야 하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유럽은 도로 부분만 봐도 행정의 유연함과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은 모두 겪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파리 등 유럽은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도의 경우에도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인도에 LCD전광판을 설치하여

현수막 없는 거리와 노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여 전기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자전거 대여사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상카페, LCD간판, 자전거대여,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 우리구도 벤치마킹하여 세외수입을 확대 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3.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사업수입 및 사용료 수입 증대 방안 제안

1) LCD간판(사용료 수입)을 확대하여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고 세외 수입을 확대하자.

우리구의 경우 건대입구 등 4군데 가량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흡연부스를 2군데 시범사업으로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LED전광판과 흡연부스는 민간 기업에서 시설하고 그 사용료의 수입을 구청과 나누어 가져갔듯이 유럽의 경우에도 민간업체가 길거리에 LCD 전광판을 군데군데 세우도록 하고, 수입을 나누고 있다. 도로의 4거리 및 주요 간선도로,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길거리에 LCD전광판을 수 백개 만든다면 현수막 없는 거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세외수입이 확대 될 것이다.



지하철출입구 LCD전광판



가로가판대 광고



LCD 양면 전광판

2) 자전거 대여(사업수입)소를 거점별로 만들어 사업수입으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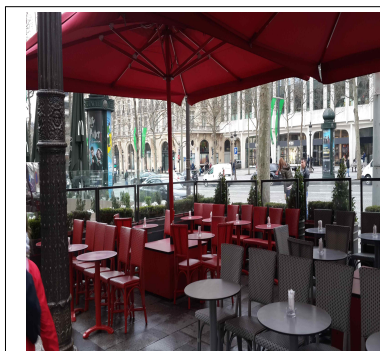
런던의 경우 대여용 자전거를 런던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제 하도록 하여 사용 시간만큼의 요금을 책정하여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 시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우리 광진구는 강변역에 무료 대여소 1개에 불과하고, 서울시에서 독섬유원지역에 유료 자전거 대여소가 있을 뿐이다.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거점별 유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사업수입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가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구라도 우선 시행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 공단에 맡겨두면 되지 않을까 한다.



3) 노상카페(사용료 수입)를 양성화 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자

우리구의 여기저기에 보면 무질서한 노점과 자영업자의 불법적인 도로 점유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의 런던의 보도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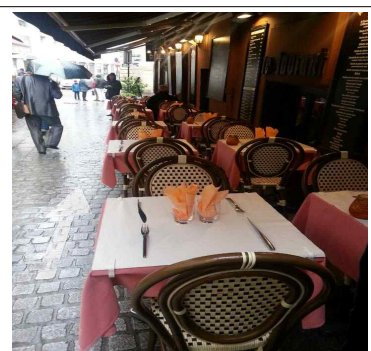
보행로 2미터 정도만 확보되면, 어느 사업장이든 카페나 음식점을 노상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우리나라도 테라스를 넓혀 인도를 점유하거나 적치물을 노상에 점유하고 있다. 이를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여 도로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외 수입을 확대 했으면 한다. 노점상도 마찬가지다. 신규 노점상을 양성하는 것은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질서 있는 노상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인접 토지 및 상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용했으면 한다.



인도상의 카페



광장의 카페



테라스공간 카페

4) 자동차 주차장(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수입)을 인도와 도로변에 유연하게 설치하자

런던이나 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는 4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제외한 2차로는 거의 다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이고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선인 교통문화의 차이성은 있겠지만, 주차장을 최대한 만들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다는 노력이 엿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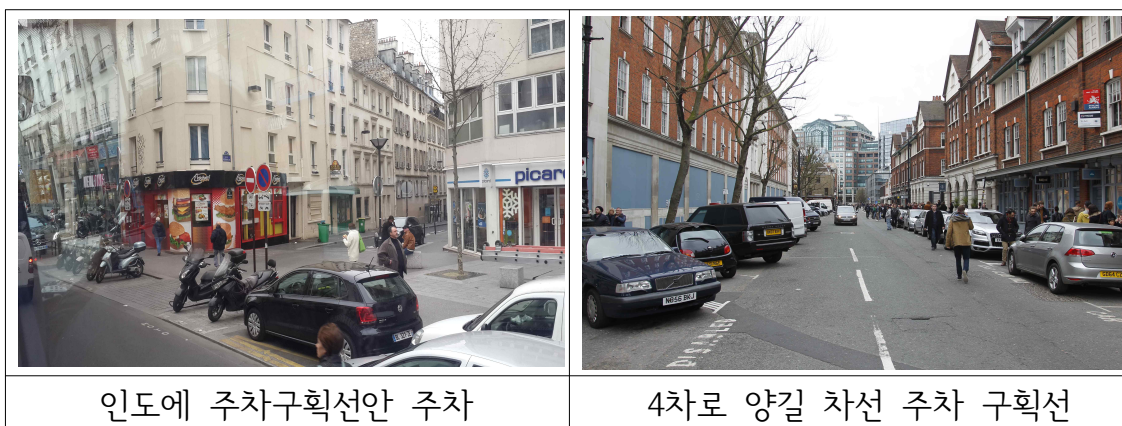
심지어 유럽은 인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관리 요원은 순회하면서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 요금에 대해 추가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출근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출근시간이 끝나면, 주차를 허용하는 행정의 유연성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인근의 경우 출근 시간을 제외한 도로의 경우 종일 주차와 시간주차 구간을 구획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수입보다 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 것이다.

주민요구 사항과 설치 가능한 도로, 인도 등 전수조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주차 가능한 도로와 인도에 주차 댓수를 파악하여 주차장을 확대하자.

우리나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자료 참조]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인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유연한 행정으로 구민 만족도는 증대 할 것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건립비 등의 재원도 절약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본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점용료 산정기준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참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산정기준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무인 공영 자전거대여 시스템 》

영국.프랑스 등 방문국 모두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은 자치구의 사업으로 은행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기반시설이다 특징은 누구나 가드를 카드기에 넣고 시간을 정해서 대여를 하는 방식이다 자전거에 필수로 장바구니가 배치되어 있고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고 내가 필요한곳에서 대여하고 목적지에다 파킹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처음에 무인 자전거를 계획한 런던 시장 존슨은 300m의 간격으로 6천대를 목표 로 추진 했다고 한다 . 시내 곳곳이 다 살펴 볼수는 없었지만 많은 곳에 설치되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우리구는 현재 구의공원 옆 1개소에서 공용 자전거 유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고양시 fifteen life, 서울시의 Eco_Station, Seoul bike, 대전광역시 ta-shu, 경남 창원시의 ‘누비자’ 가 현재 운영중이다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편의 문화 확대,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교통법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표준 내용의 정비, 보험문제 해결 등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런던과 파리의 무인 공영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모델로 우리구가 적극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야 함.

【런던 - 파리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

구 분	런 던	파 리
사 업 명	London Barclays Cycle Hire	Velib시스템
설치수량	6,000여대	20,000대
설치장소	400여개소	1,800개소
이용가격	처음 30분 무료/1시간 £1 1일 £2/1주 £10/1년£45	-보증금 150유로 처음 30분 무료/1시간 1유로 1일 /1.7유로/1주일 8유로
지불방법	신용카드	신용카드
운영방법	Barclays 은행이 운영	JCDECO(세계옥외광고 1위 업체)가 옥외광고상업권을 획득하고 설치, 시공, 운영 등을 위탁운영

【광진구 자전거 대여시스템 운영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658(구의공원 옆)/66m²
- 보유수량 : 28대
- 운영시간 : 하절기(5~10월): 09:00~19:30/ 동절기(11~4월): 09:00~18:00
- 운영내용 :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유무상 수리
- 운영방법 : 위탁운영(2명,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운영예산 : 약 23백만원(인건비 20백만원, 운영비 3백만원)
- 운영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3월 현재)
대여실적(대)	4,019	3,544	5,434	661
수리실적(대)	2,682	2,762	4,057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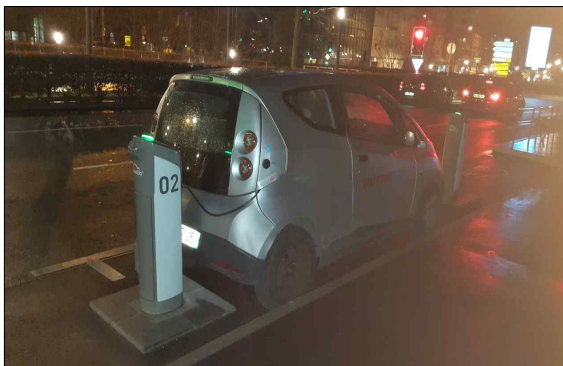
《 전기 자동차 공공 임대제 》

파리시는 2011년 11월부터 ‘오토리브(Autolib)’ 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무인 대여시스템을 도입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편리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출발지 대여소에서 전기자동차를 대여 후 사용하고 목적지 근처 대여소나 주차장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도심에 쏟아져 나오는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로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운영개요>

운영시기	2011. 12월
설치수량	3,000여대(은색 4인승 소형승용차) ※ 가입자 10만명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250km, 최고속도는 130km/h
설치장소	700여개소 주차장
이용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비 : 1일 10유로/1주 15유로/ 1년 144유로 • 이용료 : 1일 : 최초30분 7유로/이후 30분 6유로 그 이후부터는 30분 마다 8유로
이용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후 키오스크에서 신분 확인 받고 카드발급 후 이용
이용자격	운전면허 소지하고 보증금 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



스테이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대여 장소에 있는 키오스트
(본인확인을 통해 오토리브 카드발급)

《 비용이 저렴하고 수거하기 편한 쓰레기통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쓰레기통 숫자는 약3만개 그중 재떨이 1만개를 제외 하면 약 2만개이다. 웬만한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다.

파리의 경우도 곳곳이 쓰레기 통이다. 하지만 쓰레기통 이라기 보다는 예쁜 비닐주머니 모양이어서 쓰레기가 많이 차면 비닐만 묶어서 옆에다 놓아두면 작은 이륜차 크기의 차로 수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파리의 식당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 용기는 와인병 같은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그렇듯이 유리병만 수거하는 쓰레기통이 따로 설치 되어 있고, 이 유리병 쓰레기통 관리는 위탁을 주어 연간 2회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시간은 주36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청소 구획을 블록단위로 배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두나라가 선진국임을 부인 할수 없지만 아직 분리수거의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 인식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광진구의 경우 에코 쓰레기 통을 제작 작은 쓰레기도 자원으로 재활용 하려는 정책 과는 상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구가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점은

1. 적은 구획 근무로 많은 환경미화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2. 곳곳에 비닐 주머니 쓰레기통 설치
3. 유리병 수거 기금 조성으로 쓰는 것 등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르나 서로 잘 공유해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묘미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파리



투명비닐 소재 활용 쓰레기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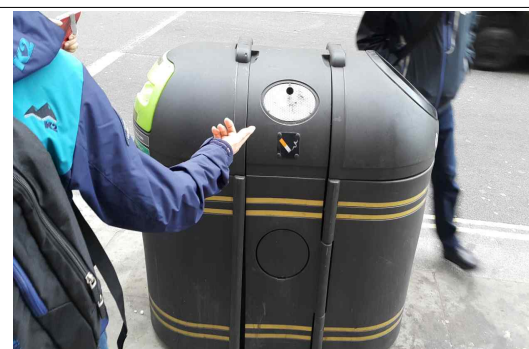


비닐 쓰레기통을 이륜차로 수월하게 수거



유리병만 수거하는 쓰레기통(판매수익을 연 2회 장애인단체에 기부)

○ 런던



종류별로 투입구가 분리된 쓰레기통(종이, 음식물, 캔, 병, 플라스틱, 담배꽂초)

VI. 맺음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 국가 연수를 통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첫째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으로 도시 전체가 유적지 같은 관광자원이 즐비하여 수많은 국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놀라웠고

둘째는 국민 생활수준이 높은 부유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물 한방울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고 물값을 지불해야 하며, 주택과 호텔의 좁은 실내공간과 수많은 소형 승용차가 자랑스러운 듯이 도로를 운행하는 등 겉보기에는 화려한 듯 하였으나 직접 들여다 보니 환경을 매우 중시하고 합리적이며 검소한 생활문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서유럽 선진국 3개국을 짧은 기간에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의식수준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8박 10일 일정의 영국, 이탈리아, 파리 연수를 마쳤다.

이번 보고서는 연수주제를 의원별로 부여한 과제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을 토대로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로 작성하여 동료의원들과 공유토록 하여 광진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결과 보고서를 마감하고자 한다.

금번 국외여행 심사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고견을 주신 심사위원님들,
연구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 의원 수행에 열성을 다한
사무국 공무원들, 연수기간 내내 커다란 도움을 주신 현지가이드, 전문
통역사 등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 병 주	
	의 원	김 창 현	
	의 원	고 양 석	
	의 원	정 관 훈	
	의 원	김 영 옥	
	의 원	오 현 정	일동

VII. 참고자료

1.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2. 네이버백과(<http://100.naver.com>)
3. 외교통상부 누리집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테이트모던(<http://www.tate.org.uk/modern>)
6. 베드제드(<http://home2.btconnect.com/bedzedpavilion>)
7. 방문시설 홍보자료 등